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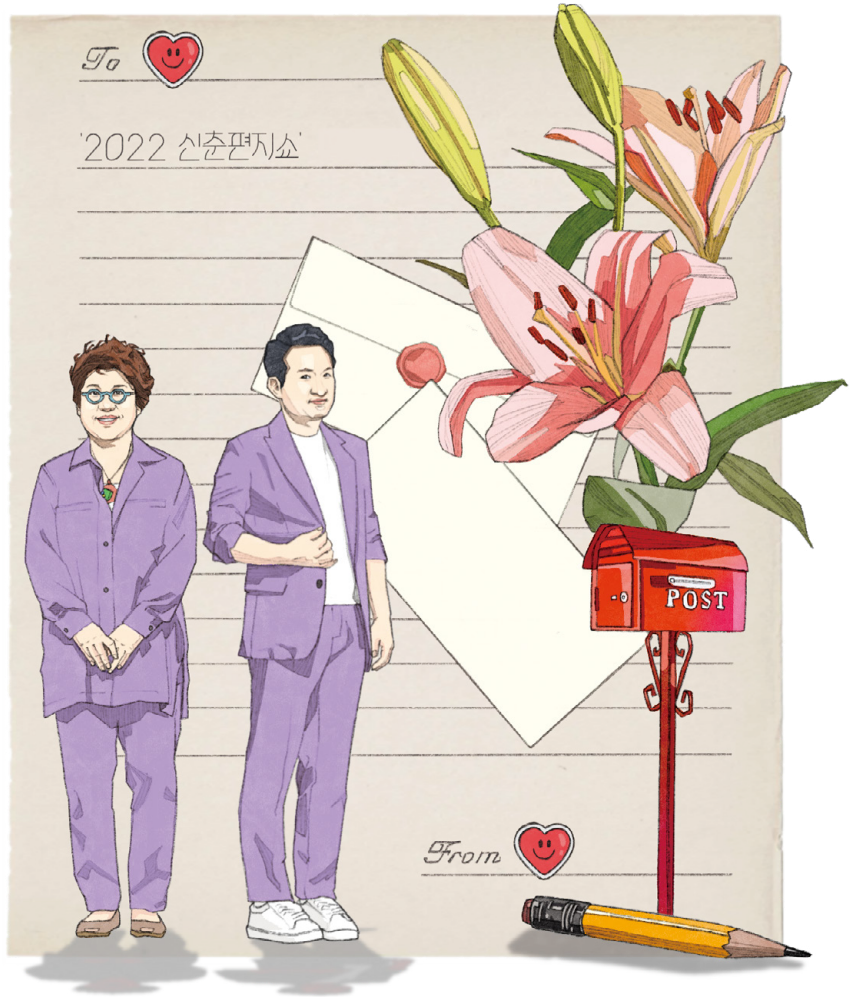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 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6 | 2022 June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거래고객
양산서울요양병원 양철호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거래고객
㈜민스샵 천정민 대표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759호(2022.02.14)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은행업감독업무」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 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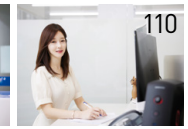
contents

2022년 6월호









04 **신춘편지쇼 시상식 스케치**
08 **신춘편지쇼 심사평**

최우수상
14 마흔두 살에 낳은 우리 둘째

우수상
20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6 새로 얻은 인생

가작
31 인생의 꽃, 집을 가지다
35 엄마, 그래도 괜찮아
42 두 번째 인연

입선
47 두 번째 집주인
53 두 어머니의 동행
58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할 수 있겠니?
63 52세에 시작한 일
69 제2의 인생

장려상
73 동고동락 자동차
77 과꽃과 수국
82 두 번째 부모님
87 수난이대(受難二代)
92 정보다 삶보다, 핏줄
97 후천적 쌍둥이의 탄생기

102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양산서울요양병원 양철호 대표

110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민스샵 천정민 대표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6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신춘편지쇼

'2 혹은 두 번째'

여성시대의 봄은 신춘편지쇼와 함께합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글 잔치인 신춘편지쇼,
올해의 글제는 '2 혹은 두 번째'였습니다.
2022년, 올해는 2라는 숫자가 셋이나 들었고
1번과 첫 번째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세상에서
여성시대는 2번과 두 번째에 시선을 주고 싶었습니다.
2번이 주는 웃음, 감동, 눈물, 자유, 설움, 출발, 인내를 담은 작품들이
전국각지와 해외에서 2천8백여 편 도착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
입선 다섯 분, 장려상 열 분이 가려졌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기념 상패와 상금 500만 원,
우수상에는 기념 상패와 상금 300만 원,
가작에는 기념 상패와 상금 200만 원,
입선은 기념 상패와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기념 상패와 상금 3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그 영광의 작품들 월간 여성시대 특집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2 신춘편지쇼
2022 新春 신춘편지쇼 시상식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심사평

진심이 담긴 글, 소망이 담긴 글

시인 나태주

신록조차 가슴속 깊은 곳의 정한을 밀어 올리는 듯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이 봄날에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읽어서 행복했습니다. 글이란 내가 쓰는 글이든 남이 쓴 글이든 굽이굽이 인생을 담기 마련이고 마음의 비밀을 토로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주고 위로해주고 끝내는 치유하는 능력까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응모된 글이 서간문(편지)이군요. 서간문은 실용적인 용도로도 쓰여지고 환정적(還情的)인 용도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하소연과 고백을 담기 마련입니다. 글의 전체적 분위기가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면으로 기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글마다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음을 느끼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더러는 서툰 손글씨로 써 내려간 글도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글을 쓰듯 써 내려간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글 속에 담긴 필자의 진정성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읽고자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웃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솟아 한참 동안 흐느끼도록 만드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진정성(眞情性) 때문입니다. 글 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밝고도 희망적인 글이 좋았습니다.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대긍정에 이른 글이 좋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문제의 봉착이며 문제의 해결 과정이라고 봅니다. 숱하게 많은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잘 풀고 해결할 때 우리는 성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전과 변용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번 행사 가운데서 등급이 앞선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모두가 인생의 반전과 변용을 끌어낸 내용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굳이 문학적인 문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문장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긴 글, 소망이 담긴 글, 인생의 성공과 공감을 담은 글을 뽑도록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수상권에 들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이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의 응모나 심사가 때로는 심사자 개인의 안목과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절대적 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척도나 판단에 따른 평가란 것을 아시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유익한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멀리 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행사로 해서 자칫 소란스럽고 무가치하게 흘러갈 뻔했던 이참의 봄이 한결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심사평

아름답고 슬프고 감동적인

배우 박정자

많은 사연, 많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도 슬프고 그리고 또 감동적입니다.

읽는 내내 '아~ 이거 소리 내어 읽어야 해'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의 사연은 제 가슴을 흥건히 적셔주었습니다.

또다시 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의 2막 2장은 모쪼록 웃음과 건강이 가득한 봄이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심사평

그림자는 어쩌면 빛의 증거

작가 김혼비

글쓰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분들께 글을 쓴다는 것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떤 사건을 실시간으로 겪어내면서 한 번 살았다면, 그 겪은 사건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들을 새로이 발견하면서 두 번 살아보는 것이라고요.

신춘편지쇼에 글을 보내기 위해 모니터와 종이 앞에서 머리를 싸맨 채로 끊임없이 기억과 기억을 더듬고, 쓴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며 글을 써낸 분들은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글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히 뜻깊은 '인생의 두 번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게다가 모두 어쩌면 그리 생생하게 솔직하고,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인생의 두 번째를 살아내셨는지요. 삶에 갑작스럽게 드리워진 크고 작은 그림자를 담담하게 담아낸 여러분의 글들을 보면서 그 그림자들까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품에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함께 커다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림자가 진다'는 것은 삶이 완전한 암흑에 잠긴 상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웠고, 그 그림자들을 이왕이면 타인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늘로 가꿔서 내어주는 현명한 다정을 배웠습니다. 이런 귀한 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글을 밤새 두세 번씩 꼼꼼히 읽으며 보낸 어느 봄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글 중 방송으로 공유되는 글은 아주 일부이겠지만,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글 속에 담긴 고군분투들과 어떤 진심들을 가슴에 깊이 담은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것을, 심사라는 인연으로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누군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차돌처럼 단단한 평온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2 신춘편지쇼

최우수상

마흔두 살에 낳은 우리 둘째

권애선 |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내 나이 마흔두 살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스물여덟 살에 결혼했고 이듬해에 딸을 낳았으니 결혼이 크게 늦은 것도 난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첫째와 둘째 터울이 열세 살이나 나냐고요? 그 이유를 찾으러 살아온 날을 되짚어 봅니다.

제가 다섯 살 때, 모내기하러 간 엄마 찾아 무작정 들판으로 달려갔다가 길을 잃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겨우 찾았는데 그날 밤에 고열이 나면서 아팠습니다. 몸살이려니 했는데 며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못 쓰고 질질 끌더랍니다. 온갖 약과 침, 송충이 볶은 가루까지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 후 다섯 살 계집아이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혼자 노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가 헌 옷으로 만들어준 봉제 인형과 깨진 사기 조각으로 소꿉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골목에서 또래들 노는 소리가

들려오면 힘이 없어 자꾸만 벗겨지는 고무신을 끈으로 동여매고 절름절름 걸어 대문 밖으로 나가 또래들 노는 것을 바라보거나 운 좋은 날은 같이 어울려 땅따먹기나 공기놀이를 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여덟 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일 아버지 자전거에 실려 다녔어요. 걷기가 조금씩 나아져 중학교는 걸어서 다닌 날이 많았고, 여고 때는 힘들게 배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고 온 다리에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멍투성이가 됐어요. 자전거 타고 학교 오가는 시간은 장애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절룩이며 걷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앞에 가는 학생을 따라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대학 진학은 못 했습니다. 농촌에는 대지주 아니고는 다들 형편이 빠듯해서 장남인 큰오빠만 대학에 진학하고, 중간은 고등학교만, 막내는 또 대학을 나왔고요. 부모님께 왜 나는 대학에 안 보내주느냐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실업계 여상을 졸업하고는 제과 대리점에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월급이 47,000원에서 50,000원쯤 됐는데 오빠 대학 등록금에 보태고, 동생들 용돈 주고, 방송통신대 등록금과 책도 사고 요긴하게 썼습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평생 독신으로 잘살아 보겠다는 야무진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다 스물일곱 살이 됐을 때 관절염을 심하게 앓던 아버지가 한쪽 폐까지 망가져 곧 돌아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흐느끼며 하시는 말씀을 엿듣게 됐습니다.

"선이를 결혼도 못 시켰는데 내가 우째 눈을 감노…."

정말이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닌, 장애 있는

딸을 결혼 못 시켰다고 자책하시다니!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두 살 아래 남동생이 다가와 그러더군요.

"누나 결혼 못 하면 나랑 살면 돼. 나도 결혼 안 하고 누나랑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부모님께 아픈 손가락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한테까지 짐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효도하고, 형제자매의 짐을 덜기 위해 그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해 12월 눈발이 조금 날리는 일요일 오후, 작은오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오빠 친구들이 수없이 들락거렸는데도 쓴 커피 한 잔 갖다준 적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얌전히 들여놓았습니다. 유자차를 건넬 때 오빠 친구가 목례하면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데 그만 가슴이 콩콩 뛰면서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 사람을 제 짝으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신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다음날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둘째 오빠는 씩 웃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내 친구 웅이가 너 중매하겠다는데 우짜지?"

그러라고 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된 다방에는 오빠 친구 혼자 나와 있었는데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동생도 나처럼 소아마비라는 것, 그래서 내가 걷는 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근했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며 부모님 과수원 농사일을 돕고 있다는 것, 결혼하면 농촌에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싶다는 것. 내게 위로가 되는 내용도 있고 부담되는 말도 있었지만 끄덕끄덕 모두 받아들였고, 결혼까지는 100미터 달리기 하듯 진행돼 다음 해 스물여덟에 5월의 신부가 됐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던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져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입장하셨는데 신부도 절룩절룩 신부 아버지도 관절염으로 절룩절룩 마치 두 사람 걸음걸이가 맞춤이라도 한 것 같았답니다. 평소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내 다리 떼서 선이 줄 수 있다면 당장 떼서 줄 텐데" 하셨는데 당신 다리도 온전치 못하게 된 겁니다. 여하튼 절룩이는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서 하객들은 더 힘찬 박수로 격려해주셨고 나는 박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잘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과수원이 생각보다 넓고 품 일꾼들 국수 새참만 해도 오전 오후 두 번을 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허리디스크로 방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우리 부부 합해서 다섯 식구 살림에 농사 뒷바라지까지 합치니 가사 노동량이 어마어마해서 겁도 나고 앞이 깜깜했지만 야무지게 달려들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면 밤 11시가 넘는 건 다반사였고 아픈 다리가 퉁퉁 부어 다리에 돌멩이를 달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덜컥 첫아이가 생겼습니다. 육아까지 보태졌으니 힘겹고 벅찬 날들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천 기저귀를 써서 기저귀 빨래만 해도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처럼 결혼 3년이 됐을 무렵 남편은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매월 받아오는 봉급으로 아이 장난감, 책, 이유식도 사고 식재료도 색다른 것을 사니 종종 콧노래를 부르는 날도 생겼고요.

더 큰 행운은 2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장애가 있던 시동생이 드디어 짝을 만나 결혼했어요. 신들의 세계에는 주고받음에 대한 법칙이 있는 걸까요. 시부모님이 나 같은 장애인 며느리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막내아들은 장애가 있지만 건강하고 명랑하고 재주 많은 막내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 내외와 살기

로 하셨다면서 우리에게 분가를 권하셨지요. 내심 좋았습니다. 분가하니 달랑 세 식구 단출해서 살림이 소꿉놀이 같았습니다.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소풍이나 어머니 모임 같은 날에는 기가 죽고 난감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내밀면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게 알려질 텐데…' '딸아이가 기죽지 않을까? 친구들이 업신여기거나 놀리지 않을까?' 그러다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엄마 등에 업혀 달리기'에서 딸아이는 나 대신 친구 엄마 등에 업혀 달렸습니다. 그때 딸아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쭈뼛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던 그때 가슴이 화끈거리고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장애를 가진 내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둘째를 낳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흔을 넘기고부터 "우리는 식구가 너무 적어서 집이 썰렁해~" 하거나 선배네 아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든든해 보인다고 해서 남편한테 많이 미안했습니다.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장애가 있지만 장점이 많아서 자랑스럽다. 엄마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요리도 잘하고 숙제도 잘 봐주신다. 그런 엄마 딸이라서 행복한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동생을 낳아주면 좋겠다'는 글이었어요. 내 기준으로 딸한테 늘 미안하고 주눅 들어있었고 그래서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딸은 나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 딸이라서 행복하다니! 순간 누더기를 벗어버린 것 같고 흉한 허물을 벗고 말갛게 다시 태어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둘째를 꿈꾸었는데 기적처럼 마흔두 살 3월에 임신!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고 임신 기간 내내 저를 왕비 모시듯 했지요. 걸을 때도

넘어질까 봐 팔짱을 꽉 꼈고 차를 몰 때도 조심조심, 몸에 좋다는 장어며 잉어, 온갖 보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태명은 '기쁨이'. 출산 후에도 아기 목욕도 같이 시키고, 외출할 때면 남편이 포대기로 안고 다니고 놀이터든 어디든 둘째의 육아는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 나이 마흔네 살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둘째가 걷고 말 배우는 과정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감사였습니다.

태교 덕인지 아니면 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성격 좋은 아이를 허락하셨는지 둘째는 구김 없이 밝고 자신감 넘치고 무한긍정 에너지를 가졌고, 특히 엄마가 나이도 많고 장애까지 있다는 사실에 전혀 기죽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데려와 선뜻 나를 소개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곤란하게 하거나 숨고 싶은 맘이 들지 않게 엄마를 감싸주었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싶을 만큼 모든 면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올해로 둘째가 스물네 살이 됐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해군에 입대했는데 사실 우리 둘째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훤칠하지도 않고, 중키에 평범한 얼굴, 명문대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들이 팔불출이라 할 수도 있지만 둘째는 밝고 맡은 일 똑 부러지게 해내는 모범 청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게는 미소와 포옹 하나로 온갖 근심과 걱정을 날려주는 마법 같은 존재고 인생을 다시 깨닫게 해준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아들, 둘째야! 나이도 많고 장애 있는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주 많이!"

2022 신춘편지쇼

우수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문정석 |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지금은 밤 12시, 예쁜 딸아이를 재우고서야 이 글을 쓴다. 근이완제의 도움으로 큰 근육강직 없이 잠들었다. 딸은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니 새벽에 자세 좀 바꿔줘야겠다. 내일은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는 날이다. 3시 예약이니 2시 하교하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남자 가정주부의 하루가 또 저물어간다.

나의 직업은 가정주부다. 2014년 11월부터 7년 6개월 경력의 조리를 제외한 집안일에 능숙한 가정주부. 원래 나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수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10월 4학년 2학기 때 병역특례로 양재동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렇다. 난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다. 29세에 결혼하고 31세에 예쁜 딸아이를 맞이하게 되었다. 맞벌이인 관계로 출산 후 1년은 장모님이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근처

에 있는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다. 그 후, 아이는 동두천에 있는 처가로 가게 됐고 우리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동두천으로 가서 주말을 아이와 함께 보냈다.

2007년 2월 설을 맞이하여 동두천에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전라남도 여수로 가게 됐다. 과학고와 과학원을 거쳐 가구회사에서 병역특례로 있던 동생과 동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발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걸까? 몸이 많이 피곤했던 걸까? 막히는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로 들어섰고 12시가 넘은 시각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살짝 졸았던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 진안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한 것이었다. 난 머리 타박상과 광대뼈, 빗장뼈, 왼쪽 팔, 왼쪽 무릎 골절로 무의식. 조수석의 동생은 개방성 뇌 손상과 발목 골절로 무의식. 뒷자리 아내는 코와 손뼈 손상으로 그나마 의식이 있었고, 뒷자리 딸 서윤이는 의식이 없었다. 카시트에 태웠다가 짜증을 많이 내서 뒷자리에 눕혔던 것이다.

근처 의료원에서 동생은 응급수술을 실시했고, 딸은 희망이 없다고 했단다. 딸 서윤이, 나와 아내 3명은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식이 없는 딸 서윤이는 기도 확보를 위해 기도삽관을 한 채로 치료에 들어갔고 나와 아내도 각각 수술을 했다. 나는 얼굴, 팔, 다리 수술을 했다. 몇 주 뒤에나 정신이 돌아왔다. 부모님도 뵙고 아내도 보고 휠체어에 탄 동생도 보았는데 딸 서윤이를 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중에 의사하고 같이 보자는 말씀만 하셨다.

며칠 뒤 성치 않은 몸으로 직장에 복귀했던 아내가 병원으로 왔고 무릎 깁스를 한 나는 휠체어를 타고 아내와 함께 신경외과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딸 서윤이 상태를 설명해주었다. CT 화면을 보여주며 대뇌의 90%가 경색된 상태라고, 물이 차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수

술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가 호흡은 하지만 힘들어해서 목을 뚫어 기도와 연결되는 관을 삽입하여 그 관을 통해 호흡하는 상태이고, 섭식을 위해 코를 통해 식도와 연결되는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고. 대뇌 90%가 경색이라니 난 사실 그 말을 들은 후 이어지는 다른 말은 기억도 안 난다. 그나마 몇십 년 뒤 줄기세포 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의사의 설명과 사고 당시 18개월이었던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기대를 가져보자는 말만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렇게 딸 서윤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일산 모 병원에 레지던트로 있던 친구와 연락이 되어 3개월 뒤 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추가 검사 결과 삼키는 기능이 좋지 않고 대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중추신경 부위가 손상되어 시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왼쪽 눈만 빛 반사가 있다고 했다. 빛의 유무는 느낀다는 의미였다. 또한 목을 가누지 못하는데 때에 따라 평생 가기도 하고 중간에 개선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게 딸 서윤이의 재활 생활이 시작되었고, 나의 인생은 다른 모드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어두운 인생. 잠시 재활의학과에 입원했던 시절을 되짚어본다. 딸 서윤이의 간병은 장모님께서 맡아주셨다. 당시 집은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역 부근. 차는 사고로 폐차되어 전철을 타고 인덕원역과 일산 백석역을 이동해야 했다.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딸과 동생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온 가족을 슬픔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사고의 장본인. 그래도… 살아야지…. 5급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내 가족과 동생을 위해 다소 남은 정년을 앞당기셨다.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도 해야지 싶었다.

삶을 위한 몸부림의 시작은 일단 일자리였다. 채용 공고를 보던 중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가구회사에서 동생과 병역특례를 같이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창업한 회사였다. 그렇게 사고 뒤 첫 회사생활이 시작되었다. 난 뇌진탕 후유증인지 단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항은 기록해야만 했다. 당시 집과 회사에서 나쁜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휴대폰에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뒀다.

아내와 나는 화·목요일 저녁은 병원에 있는 서윤이에게 갔다. 저녁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채운 엉덩이를 씻기고 침대에 뉘어서 재우면 10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에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기 위해 외박 신청을 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딸 서윤이와 같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 일요일은 머리 감기고 목욕시켜 다시 병원으로 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다. 어떤 병원이든 입원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형 병원은 4~5주, 재활 병원은 2달.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는 퇴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재활병원 유랑생활. 입원 중이던 일산의 병원을 시작으로 분당의 병원, OOO어린이병원, 신촌의 병원, 그 외 소아 재활에 좋은 병원 입원을 위해 많은 병원에 다녔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소견서, 진단서, 영상자료 CD, 약 및 기타 병원 용품을 챙겨서 입원실을 나선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서 입원 수속하고 짐을 정리하고 입원실 환아 보호자와 인사하고 1~2일 뒤 나중 재입원을 위해 떠난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 신청하고.

소아 재활 환아의 경우 뼈와 근육의 성장이 수반되기 때문에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 치료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연유로 시작된 병원 유랑은 2011년 초까지 만 4년간 계속되었고, 2011년 3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서 입원 생활용품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일반인의 생활과 더 가까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 등·하원은 외할아버지께서 맡아주셨다. 경기 약을 처방받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신촌의 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고 처방받았다. 그렇게 또 몇 년간의 생활이 계속되었고 서윤이의 신체는 정상 아동보다는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갔다.

할아버지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보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활동보조사와 매칭되어 서윤이의 등·하원 및 재활 병원 왕래를 도와주는 분이 생겼다. 하지만 시각이 없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서윤이를 안고 휠체어와 카시트에 옮겨 태우는 작업이 힘들어서인지 서윤이 얼굴에는 계속해서 긁히는 상처가 생기고 활동보조인도 그만두고 새로운 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2014년 11월 결국 서윤이 아빠인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서윤이를 돌보게 되었다. 전업주부로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장애아동 보호자로서의 남자주부 생활은 대략 이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윤이 누워 있는 자세 바로잡고 방문을 살짝 닫고 부엌으로 향한다. 강직으로 밤중에 항상 몸을 비틀며 칭얼대면서 아빠를 깨운다. 아빠는 서윤이를 웅크리는 자세로 만들어 옆으로 뉘어 안아주어 강직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호흡이 가지런해지면 바른 자세로 눕히고 잠이 드는데 아침에 깨어보면 몸은 또 비틀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에 먹일 반찬을 그릇에 담고 가위로 반찬을 다진다. 씹는 기능이 약한 서윤이가 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침 준비를 하고 깨워서 약을 먹이고 준비한 아침을 먹인 후 양치, 세안, 머리 빗질 후 옷을 입혀서 등굣길에 나서게 된다.

학교에서 점심 후 하교하면서 치료가 있는 날은 병원이나 복지관 또는 치료센터에 가서 의사 진료 혹은 재활 치료를 받고 귀가하게 된다. 집에서 아이 간식을 먹이고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있어 굳어진 관절을 움직여 풀어준 후 진행되고 있는 고관절 탈구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방지지 기립기에 세운 후 저녁을 준비한다.

저녁을 먹인 후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아내와 함께 양치 및 세안하고 엉덩이를 씻기고 아빠도 저녁을 먹는다. 저녁 소화 뒤 또다시 관절 및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 2회 복용하는 경기 약 중 저녁 약을 먹고 다시 후방지지 기립기에 오른 후 10시 30분쯤 내려온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침대에 누우면 편해서인지 그냥 웃는다. 정말 미치도록 예쁘게 웃는다. 누운 채 기지개도 켜고 잠시 노래도 부른 후 슬슬 자장가를 틀어 놓고 수면 모드를 조성한다. 똑바로 누우면 호흡을 힘들어해서 옆으로 눕혀서 재운다. 아빠가 팔로 머리를 받치며 안아서 재우게 된다. 보통 12시 이전에 잠을 잔다. 나는 막 잠든 서윤이 옆에 앉아서 혹시 잠에서 깰 경우를 대비하며 서윤이를 보며 휴대폰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웹서핑을 한다. 그러다 1시경 서윤이가 깨지 않게 다른 이불을 덮고 옆에서 잔다.

이런 생활 방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미래지만 많이 힘들 것이다. 행복이라는 말을 편하게 읊조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서윤이가 "아빠~"라고만 불러줘도 정말 많이 행복할 텐데. 노년에 대한 준비도 마지막에 대한 준비도 조금씩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수시로 든다.

그래도 힘을 내어 본다. 나와 동생의 간호를 위해 공직에서 나오신 아버지. 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엄마와 장인·장모님. 가구 회사에서 반강제로 퇴사하고 몇 년 뒤 장애인 할당제를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내 동생. 그리고 나의 아내 서윤이 엄마. 가족 모두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2022 신춘편지쇼

우수상

새로 얻은 인생

전보경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사랑하는 딸아, 눈 좀 떠 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쉴 것 같다.
하루 종일 누가 나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밟고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15년 8월, 백혈병을 진단받고 의식 없는 딸의 모습을 마주하며 절규한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고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딸의 치료가 진행되던 시간 동안 주치의가 말해준 수없이 많은 최악의 상황을 기도하며 버텨야 했던 어머니, 주렁주렁 달린 링거 줄에 의지하며 누워 있는 누이의 현실을 멍하니 지켜봐야 했던 동생, 온몸이 멍으로 가득한 딸을 보고 넋을 잃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

버렸던 아버지. 삶과 죽음의 순간이 찰나임을 실감합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순간들을 넘기고 처음 눈을 떴을 때, 대학병원 무균실에서 온몸이 링거 줄로 뒤덮인 저를 확인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은 꿈이라고 여러 번 볼을 꼬집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눈을 뜨면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 한 번 펴본 적 없고 가족력도 없는데 직장에선 남들이 마다하는 일도 싫은 소리 없이 도맡아 했고 나름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왜? 왜? 도대체 왜 내가? 수없이 묻고 또 물으며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라고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무균실 창문 밖으로 눈물을 삼키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하루도 쉽게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바닥이던 날은 고열로 용암이 새어 나오듯 몸이 뜨거웠다가 사시나무 떨듯 춥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구토가 심해 식판을 밀쳐냈습니다. 어떤 날은 환각과 초조함으로 밤새 섬망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맞은편 병상에선 때때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딸아, 사랑한다."

며칠간 밤새 사투를 벌이던 침상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병실에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임을 알기에 모두가 숨죽여 울던 그때, 창밖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나는 이 벚꽃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에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 극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1월 29일, 그날은 저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대신 감당해야 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기 위해 두 다리를 얻고 난 후 목소리를 잃었듯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온몸이 빨갛고 따가워요. 손톱과 발톱이 다 갈라지고 빠졌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신생아와 마찬가지 상태니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사람마다 회복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피부가 딱딱하고 눈이 건조해요. 입 안에서 피도 나고 숨도 쉬기가 힘들어요."

"이식 숙주 반응이 나타나고 있네요.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 굳게 먹고 신약이 나올 때까지 증상 완화제를 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져 먹어야 할 약이 더 늘었고, 조금 걸었다 싶으면 발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칼로 입안을 베는 것같이 고통스러웠고 피부는 얼룩덜룩한 색으로 변했으며 머리카락은 가늘어져 힘없이 빠지곤 했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라고 했던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같은 날들이 계속됐고, 계속되는 부작용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나겠다고 죽을힘을 다해 병간호하는 어머니를 고통으로 몰아가던 그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

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경아, 1인 무균실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섬망 증상으로 앞이 안 보이고 멈추지 않는 구토 때문에 진통제를 맞아야 겨우겨우 잠들던 때, 엄마가 유리 벽 넘어 수화기로 너에게 했던 말 기억해?"

"무슨 말?"

"지금 참지 못하면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우리 가족들 다 평생 못 봐.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세상의 따뜻한 풍경들도 영원히 못 봐. 백혈병은 사망률도 높고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보경이는 기증자께서 두 번째 삶을 선물해주셨잖아. 다시 살아 돌아와 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힘든 고비 잘 넘겨왔으니까 너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힘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듯 지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합병증으로 먼저 떠나는 환우들을 보며 가슴 아팠고, 저도 곧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지금 나에겐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와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확률은 논문을 위한 통계 자료일 뿐 내가 1%에 들지 99%에 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머리 아픈 숫자는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나는 끝까지 방심도 절망도 하지 말고 건강해지겠다는 생각만 하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생각은 조금씩 현실이 되었고, 2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깨고 저는 지금 이식 후 두 번째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란 시에 나오는 '생명은 기대지 않으면 살

아갈 수 없다'라는 구절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저를 받쳐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묵묵히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준 직장 동료들, 꽃다운 나이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소식에 무너져가는 마음을 달래주며 응원을 보내준 친구들, 온갖 수소문으로 명의를 알아봐 주신 아버지의 지인들,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신 의료진 선생님들, 대답 없는 저의 휴대폰으로 안부 인사를 보내주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도 저는 이식 부작용과 백혈병에 이은 두 번째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시 좋은 딸, 좋은 친구가 되어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매 순간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신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기증자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 맞이하는 두 번째 삶이라 더욱 소중한 만큼 이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의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면 더 나은 내일이 오겠지요. 그리고 완치하는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요.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라도 끝까지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의 이유를 저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오늘이 늘 마지막인 듯 간절하게 고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의 암을 이기고 마침내 올 따뜻한 봄을 닮았을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오늘도 저를 일으켜 세워준 그대들을 사랑한다고 전하면서 말입니다.

2022 신춘편지쇼

가작

인생의 꽃, 집을 가지다

곽품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

어려서부터 말괄량이 기질이 있었던 나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쏟아졌다. 정적인 것이 싫어서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대만에서 태권도 선수로 승승장구하다가 스무 살 때 부상을 입었다. 무릎 부상은 치명적이어서 선수로서 삶은 끝났다. 회사의 경리사원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나름대로 적성에 잘 맞았다.

그러다 부모님과 마찰이 생겼다. 언니의 이혼 문제로 부모님과 다툰 후 나는 자전거에 작은 가방 2개를 가지고 집을 나왔다. 작은 방을 얻어 자취하면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로 십 년 동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았다. 고향 집으로 찾아가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찾아오지도 않으셨다. 유일한 연락은 남동생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나는 태권도 종주국 한국을 왕래했다. 한국은 나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 겨울에 가면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나라. 바쁘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나라. 매년 더위가 끊이지 않는 대만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

2008년 여름, 제자 2명과 한국에 아는 관장님이 하시는 태권도장으로 2달간 훈련을 왔다. 처음엔 관장님 댁에 얹혀살기도 했지만 눈치가 보였다. 제자들과 태권도장 마룻바닥에 매트를 깔고 지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짜장면과 김밥, 라면을 주식으로 했다.

그러다가 인터넷 친구 만들기 사이트에 올려놓은 나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 온 남자와 처음 만났다. 그 남자는 운전기사 일을 했다. 처음부터 인증샷을 찍어 보내서 살짝 미친 남자가 아닌가 싶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일요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춘천과 남이섬 여행을 다녀왔다. 소박한 이 사람과 한국에서 살아도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고 짧은 영어와 손짓·발짓으로 묻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미루던 남자는 나중에 나를 처음 만났던 지하철역 건물 옆 지하로 데려갔다. 커다란 24시 사우나 찜질방이었다. 그 역시 나처럼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혼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2년째 찜질방에서 살고 있었다.

1년 후 2009년 7월, 나이 마흔한 살의 남자와 서른일곱의 여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 축하금으로 250만 원을 주셨다. 결혼식 1인당 식대 2만 원, 100명분 식대 2백만 원을 그 돈으로 해결했다. 결혼사진도 무료, 드레스도 무료로 해주는 곳에서 했다. 남편과 나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일했다. 그토록 바라던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체육관 매트에서 생활하던 여자와 찜질방 매트에서 생활하던 남자가 의기투합하였다. 한국에서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의 목표는 내 힘으로 마련한 내 집을 가지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부터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했다. 나 스스로 해내야지만 직성이 풀렸다. 대출받아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1년 후 작은 방 두 개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한국어를 배워 태권도 통역을 하고 관광 통역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 2년 전세가 끝나고 방 세 칸짜리 지하로 또 이사를 했다. 화장실은 주인집 계단 아래 있어서 허리를 굽혀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었다. 세탁기를 돌릴 때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흔들리는 세탁기를 꼭 붙잡고 있기도 했다.

귀화 시험을 볼 때는 3개월간 정말 열심히 쓰고 말하고 외우면서 공부했다. 면접관이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조선의 역사며 위인들, 한국의 지명을 술술 말하는 나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땄다.

반지하 방의 전세가 끝나가고 있었고 새집을 구해야 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조금 밖에 없어서 다시 대출받아야 했다. 남편은 겁이 많아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망설였다. 나는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을 사자고 말했다. 대출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변두리를 돌다가 플래카드 광고를 보고 빌라를 보러 갔다. 작은 산비탈에 있는 신축 빌라였는데 여전히 지하였지만, 방이 3개, 화장실 2개,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었다. 변기에 앉을 때 허리를 안 숙여도 되고 바로 머리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 지하여도 산비탈을 깎아 만든 테라스와 작은 텃밭도 있는 집이었다. 남편과 나는 대출을 받아 그 집을 계약했다. 봄에는 상추와 깻잎을 심었다.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남편과 나의 적은 월급은 대출금 상환에 들어갔고 재작년 드디어 예상보다 빨리 대출금을 다 갚아 완전한 우리 집이 되었다.

남편은 옥탑방, 고시원, 찜질방에서도 살았다. 나 역시 친구 집, 체육관 매트, 반지하 원룸 등을 거쳤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아직도 지하에 산다. 하지만 이곳은 남편과 내 이름으로 된 결혼 10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방 세 칸짜리 우리 집이다! 드디어 한국에서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의 꿈과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나는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이웃을 위한 봉사도 하고 더 즐겁고 당당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하리라 다짐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인생은 성공작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2022 신춘편지쇼

가작

엄마, 그래도 괜찮아

애청자

"아빠가 너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랬어. 미안해."

작년 초 새아빠에게 꾹꾹 눌렀던 서운한 점을 울면서 토로해 버리는 바람에 난 일 년 넘게 엄마한테 전화할 수도 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 엄마는 새아빠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지. 난 언제나 두 번째고.'

어릴 적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나는 늘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딸보다는 남자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인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해왔다. 내 동의 없이 몇 번이나 재혼을 했으면서 새아빠와 그 자녀들과 잘 지내는 걸 바라던 엄마. 정성스러운 밥과 반찬은 내가 아닌, 새아빠와 그 식구들 몫이었고 내가 아플 때 옆에 없던 엄마는 시어머니 간병에 이젠 새아빠까지 몇 년

을 간병하며 희생했다. 그런데도 새아빠한테 버려질까 전전긍긍하며 딸의 마음마저 외면하는 엄마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그저 새아빠가 나한테 화가 났던 사실을 더 신경 쓰는 엄마한테 지쳐 나는 일 년 넘게 새아빠 몰래 연락하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고 가끔 보내오는 문자만 짧게 답장했다.

'그래. 지금껏 조마조마하며 엄마 인생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나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내가 새아빠한테 밀리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엄마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잊으면 잊으려 할수록 밤마다 엄마가 아픈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며 나를 괴롭혔고 매일 밤 악몽을 꾼 탓에 나는 잠드는 게 무서워 밤을 꼴딱 새우곤 했다. 엄마를 안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홀가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마치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들며 365일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미크론에 걸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때 1년 만에 새아빠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가 몇 년 만에 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으로. 내가 연락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던 새아빠로 인해 1년 넘게 엄마를 보지 못했고 오직 꿈에서만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 현실에서 오랜만에 엄마랑 재회하는 장소가 정신병동이라는 게 참 서글펐다.

"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냐?"

오미크론으로 인해 면회도 문밖에서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엄마는 유리창 건너 일 년 만에 마주한 딸을 보며 대뜸 원망을 쏟아냈다. '엄마는 새아빠 눈치 보느라 늘 내 연락은 잘 받지도 않았으면서.' 엄마에게 원망 어린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정신과 약 때문에 내내 졸면서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모진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으이구~ 우리 예쁜 딸."

그저 문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던 난 엄마가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 창문을 만지는 통에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엄마는 왜 평소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꼭 병이 재발되었을 때만 하는 것일까?

엄마가 조울증이라는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된 건 내가 1살도 안 돼서 자살한 친아빠의 죽음을 목격한 후였다. 외갓집의 사업 실패와 점점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유서 한 장 달랑 남기고 연탄가스로 자살을 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엄마는 평생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셨고, 그 후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엄마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병원으로 도망쳤다.

"너희 친아빠 장례식 때 이 지긋지긋한 병이 시작됐어. 혼절하고 깨어보니 정신병원이더라. 몇 번이나 나도 목숨을 끊고 싶었어. 그런데 어린 너를 혼자 두고 차마 갈 수 없어서 하루하루 버텼다."

몇 년 전, 외할아버지 장례식 후 병이 재발하였던 엄마는 내게 그동안의 억울함을 쏟아내듯 잠도 안 자고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격앙된 목소리로 들려줬었다.

"재혼할 때 6천만 원만 놓고 가면 너를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준다는 말에 무릎 연골이 닳도록 평생 청소와 식당 일하면서 번 돈 전부 다 네 할아버지한테 주고 널 맡기고 재혼했는데 그 돈을 너한테 하나도 안 주고 몽땅 다 사업에 투자해 말아 먹을 줄이야. 네 아빠도 네 할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에 죽은 건데 내가 바보였지. 할아버지를 또 믿다니. 내가 이렇게 못났어."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지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전까진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운 엄마의 고단함 대신 아빠 없이 큰 내 아픔이 우선이라 여기며 엄마를 원망하며 컸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복잡해졌었다. 엄마가 아파야만 들을 수 있었던 엄마의 인생과 내 어린 시절 이야기. 그래서인지 난 엄마가 조울증으로 아프면 엄마의 마음 한구석 차곡차곡 묵혀있던 감정들을 알게 되며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된 적도 많았다. 비록 퇴원하면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꾹 닫고 다시 새아빠 곁으로 돌아가 살며 나와 거리를 두었지만.

"엄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한 달만 모실게요."

엄마가 입원 전, 몇 달 동안 새아빠랑 부부싸움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난 한 달이라도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몸과 마음을 푹 쉬고 완전히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만 엄마를 모시겠다고 새아빠한테 말씀드렸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내 딸 내 마음대로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엄마를 퇴원 후 바로 새아빠 곁으로 보내기엔 엄마가 병원에서 내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암에 걸린 후부터 몸과 마음이 약해진 탓에 새아빠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셨지만, 엄마의 밥과 약 먹는 걸 새아빠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듯 보였다.

"엄마는 전화 안 받고 뭐 하고 있지?"

하지만 퇴원 후 그다음 날부터 새아빠의 연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져 나와 엄마를 힘들게 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해 엄마가 전화를 바로 안 받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하고 문자 보내며 화를 내셨고 엄마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아빠의 화를 잠재우려 벌벌 떨었다. '나도 며칠 겪어 보니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60대인 엄마가 임신한 것 같다는 둥,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둥 엄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나까지 추궁하는 새아빠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내 감정 같았으면 새아빠한테 진즉에 화를 냈겠지만 또 다시 새아빠가 엄마와 나를 멀어지게 할까 봐 두려워 나는 꾹꾹 참고 아이 달래듯 매일 부드러운 말로 새아빠를 달래드렸다.

엄마 보살피랴 새아빠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몸은 고단하고 하던 일도 모두 멈출 만큼 경제적으로는 손해되는 시간이었지만, 지난 일 년 동안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현실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아침마다 동네 근처를 산책시켜 드리고 오후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게 해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카페에 갔는데 어떤 차를 드시고 싶냐는 내 질문에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몽차. 네가 예전에 엄마 직장에 와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자몽차 타 줬었는데 그 자몽차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 후로 자몽차만 보면 네가 생각났어."

엄마의 대답에 나는 그만 화장실에 가서 몰래 숨죽여 울고 말았다. 그 대답을 끝내자마자 정신과 약 때문에 자몽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꾸벅꾸벅 조는 엄마의 모습도 속상했지만 다른 딸들처럼 명품 가방 하나 안겨주지 못하고 그저 자몽차 하나 해준 딸의 선물이 뭐 그리 좋았는지 그걸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알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키 150도 안 되는 조그마한 체구로 중학교 졸업도 못 한 채 공순이로 업신여김을 받으며 삼촌들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선 과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울증과 싸워가면서도 혼자 딸을 키웠던 엄마의 아

픔을 나는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을수록 깨닫고 있었다.

"이상해. 내가 지금 너랑 이러고 있는 게 다 꿈같아."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저녁노을을 보며 엄마는 말했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신기해했다. 그저 딸네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산책만 했을 뿐인데.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평생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속으로 그저 끙끙 앓고 슬픔을 삼키며 아파했던 엄마에겐 꿈처럼 아름답게만 다가왔나 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한 달을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새아빠한테 약속받았지만 2주도 채 안 돼서 새아빠는 엄마를 다시 데려가 버린 것이다.

"미안하다. 지금 나는 네 엄마가 많이 필요해."

본인도 그동안 나한테 어이없는 일로 화낸 게 미안했는지 새아빤 엄마를 데려가기 전 처음으로 내게 사과를 했다. '나도 엄마가 필요한데…'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가득 찼지만, 새아빠가 또 화낼까 봐 정신없이 짐을 싸고 있는 엄마를 보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래. 난 엄마에게 두 번째였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엄마를 배웅하며 나는 새아빠 몰래 엄마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다.

"엄마, 나중에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와서 며칠이라도 쉬었다 가."

평생 공장과 식당일, 청소일을 하면서 쭈글쭈글해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나는 내 진심을 전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갔던 아울렛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남편이 장모님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야기해 주었다.

"옛날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을 때 나는 겁이 많아 타질 못했는데 우리 딸은 다섯 살인데도 잘 타더라고."



엄마는 말을 안 했을 뿐 늘 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자몽차를 봐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언제나. 나도 이제 나이 마흔을 앞두고 보니 그동안 고단했을 엄마의 인생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 나가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엄마의 슬픔을. 나와 놀아주기 싫어 주말에도 잠만 자는 거라 여겼던 엄마의 행동이 사실은 아빠를 보내고 생긴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비밀을. 약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자던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나에게 관심 없다 원망했는데 실은 우울증과 싸워가면서도 어린 딸을 먹여 살리려 했던 뭉클한 모성애였음을. 그러니 새아빠에게 밀린 두 번째여도 이젠 서운하지 않다. 정말 좋다. 엄마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니까.

2022 신춘편지쇼

가작

두 번째 인연

김태영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97년 1월 말, 스물일곱 꽃보다 예쁠 나이의 아내는 갓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불꽃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어머니는 가족묘에 아내를 묻자는 내 부탁을 거절하셨다. 제사를 지내줄 자녀도 없을 뿐 아니라 아내의 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아들놈의 모습을 볼 용기가 없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차마 버리지 못한 한 줌의 재를 가져와 아버지 산소 옆에 땅을 파서 묻고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봉분을 세웠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종이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아내의 이름을 적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봉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삼월 끝자락에 아내의 사십구재를 치르기 위해 고향 산사를 찾아 아내의 유품을 태우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다. 사십구재를 마치고 포천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3월의 마지막 날답게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벚꽃 길을 연인이 가족이 함께 걷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며 깔깔대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십구재를 치르고 돌아온 집안, 이제는 병든 아내마저 없는 텅 빈 공간.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누이면 어둠 속에서 아내가 나를 불렀다. 눈을 뜨면 아내는 언제나 맞은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아내가 베던 베개에서 누룩곰팡이 냄새가 났다. 마주한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아이가 울었다. 우는 아이를 안은 아내가 온종일 방안을 맴돌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피시방에 몸을 숨겼다. 게임의 세계는 아내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내 영혼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임 속 세상은 완벽했다. 사람들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되살리면 그만이었다. 몬스터게임은 또 다른 나만의 세상이었다. 한 층 한 층 내려갈수록 어둠은 깊어졌고 나의 분신인 게임 캐릭터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강인해졌다. 마침내 '지존'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 열네 시간 이상을 피시방에서 살았고 때론 사흘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매캐한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서 서너 잔의 자판기 커피와 컵라면 두어 개가 내 하루치 양식이었다. 버림받은 육체는 견디지 못하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들어 갔다. 혈변이 나오고 마른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다.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희망 없는 삶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수년이 흘러도 봄은 다시 찾아왔고, 아내가 떠난 벚꽃 핀 거리를 연인들이

가족들이 걸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끊이지 않았다. 잔인한 봄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피해 나의 은신처인 피시방에 몸을 숨겼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고 핏기 가득 충혈된 눈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시방 문 앞 담벼락에 기대앉았다.

사월 초,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찬바람을 맞으며 한 모금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담배 연기를 흩트렸다. 흩어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 붉게 물든 새벽노을이 보였다. 붉은 노을 사이로 벚꽃잎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이 몰아치자 한 잎 한 잎 떨어지던 벚꽃잎이 우수수 흩날려 마침내 꽃보라를 이루었다. 무수히 떨어지는 꽃보라를 새벽노을이 붉게 물들였다.

붉게 물든 꽃잎 사이로 기억 저편 너머에 있던 아내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가물거리던 아내 얼굴이 마침내 선명해졌을 때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꽃보다 하얗게 노을보다 붉게…. 웃고 있던 아내가 점점 멀어지더니 끝내 흰 점이 되어 사라졌다. 사라져가는 아내를 붙잡으려 팔을 내밀어 보았지만 떨어진 벚꽃잎만이 아내를 대신하고 있었다. 슬슬 눈이 감겼다. 먼 곳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아들의 입원 소식에 천릿길을 한걸음에 달려오신 어머니가 병원 문을 나서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인제 그만 집에 가자. 화물차 한 대 사줄 테니까 과일 장사라도 하려무나."

"싫어요."

막내아들의 끝없는 방황에 어머니는 마침내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셨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비로소 나는 살아야겠다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가시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만이 이 기나긴 방황을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황 끝에 내게 남은 건 빈곤한 삶과 병든 육체, 형편없는 직업, 그리고 막대한 빚이 전부였다. 이런 내게 시집올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 있어요? 집은요? 한 달에 4백 이상 벌어올 수 있어요?"

여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어요? 고생하려면 혼자나 하세요. 괜히 애먼 여자 데려다 같이 고생시키지 말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준비 없이 새로운 사랑을 꿈꾼 내 잘못이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못 잊어 수년을 허무하게 보낸 내 잘못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 피시방도 끊고 빚을 갚기 위해 적금도 부었지만, 결혼을 포기한 나는 희망을 잃은 지난날로 시나브로 돌아가고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인연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전혀 닿을 수 없는 인연이었음에도 우리가 만난 건 분명 운명이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결혼하자는 내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 있어요? 집은? 한 달에 얼마 벌어다 줄 수 있어요?"

수많은 여자가 해오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녀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몽골에 7년 전에 두고 온 열 살 된 딸이 있어요."

남편의 부재로 졸지에 가장이 되어버린 그녀의 삶 또한 험난하기가 자갈길보다 거칠었다.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숨어 살면서도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딸과 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했다. 우리가 만난 2004년은 유달리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이 심했다. 매일 쫓기는 삶을

사는 그녀는 많이 지쳐 있었다.

"인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딸을 못 본 지 벌써 7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불체자 단속반에게 잡혀 강제 추방이라도 당하고 싶어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 흘리는 그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말없이 안아주는 일뿐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된 우리는 2005년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었다. 두 번째 아빠, 두 번째 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서로에게 두 번째이기에 더더욱 애틋하여 서로에게 애틋함으로 첫 번째가 된 우리의 두 번째 인연. 내게 주어진 7년의 방황, 아내에게 주어진 7년의 고난, 딸에게 주어진 엄마에 대한 7년의 그리움은 어쩌면 우리 인연을 단단하게 만들려 마련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마냥 행복하기만한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은 서로를 지치게 했고, 특히나 준비 없이 한 결혼은 경제적 빈곤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딸과 아내는 단 한 번도 내게 경제적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다. 고마운 일이다. 수많은 환란과 갈등, 경제적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꼭 잡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꼭 잡은 손 위로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아기 엄마가 되었다. 2022년 1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가 태어났다. 처음으로 외손자를 안아보던 날, 우리는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벚꽃 핀 거리가 더는 아프지 않았다.

2022 신춘편지쇼

입선

두 번째 집주인

강문수 | 경북 경주시 한빛길

4살, 6살 두 아들을 데리고 셋방을 구하기 위해 한나절을 헤매고 다니다가 '셋방 있음'이란 쪽지를 보고 대문을 두드렸다. 내 나이 정도 된 주인 되는 여자가 나왔다. 방 있느냐는 나의 말에 대답 대신 내 곁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사내아이만 둘이네요?" 퉁명스러운 말투로 묻는다.

"네, 둘 다 아들이에요."

"사내아이들은 시끄럽고 장난이 심해서…."

언짢은 내색이다.

"조용히 키울게요."

나의 말에 들어와서 방을 보라고 한다. 주인집 옆에 방 2개에다 연탄 부엌이었다. 그날 계약을 하고 일요일에 이사하겠다고 했다. 이사하는 날부터 주인 여자의 갑질이 시작됐다. 주인집은 3살, 6살 여자아

이만 둘이었다. 우리 두 아이를 불러 세워 놓고 자기 딸들한테 가까이 하지 마라, 마당에서 시끄럽게 놀지 마라, 대문도 살살 닫고 다녀라 하니 두 아이는 눈만 껌벅이며 듣고 있었다.

이사 왔다고 지인들이 찾아오면 "집을 사서 온 것도 아니고 셋방 얻어 왔는데 창피스럽게 무슨 손님들이 오냐"며 비꼬아대고, 아침 일찍 빨래해서 널어놓으면 우리 빨래를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네 빨래를 널었다. 가난한 것이 죄가 되었지만, 꾹꾹 참고 응원군인 두 아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았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며 일기장에 서러움을 토해냈다. 그때의 일기글이 생각난다.

'하나의 풀잎이고 싶다. 어느 땅이건 뿌리만 내리면 그곳이 집이 되는 풀잎이고 싶다.'

'하늘을 나는 새이고 싶다. 앉은 나뭇가지가 그의 집인 새이고 싶다.'

그날은 시골에 오일장이 있던 날이다. 남편 출근하고 나는 빨래하고 마당 청소까지 마치고 두 아이와 시골 장에 구경할 겸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다. 빨랫비누도 사고, 각설이 타령하며 엿 파는 곳을 구경하다 엿도 사고, 두 아이에게 솜사탕도 사서 들려주며 장 구경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이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주인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장롱 깊숙하게 두었던 금반지와 패물을 훔쳐 갔다고 했다. 주인 여자는 나를 보더니 집 안 지키고 장 구경 갔었냐며 당장 이사 나가라고 눈을 부릅뜨며 화풀이를 했다. 재수 없는 사람이 이사를 와서 도둑을 당했단다. 나를 집 지키는 개로 생각했나 보다.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다. 저녁에 퇴근해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주인집에 가서 당장 뒤엎어 버린다고 나서는데 말리고 말려서 겨우 붙들었다.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

나는 두 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주인집에 나쁜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 갔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우리 예쁜 두 아들 무서울까 봐 도둑이 안 오는 집으로 가라고 해서 이사 가야 해."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큰아이가 힘 있게 말했다.

"엄마, 나는 커서 나쁜 도둑 잡는 경찰이 될 거야."

형의 말에 작은아이도 "엄마, 나는 씩씩한 군인이 될 거야."

"그래,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거라."

나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이튿날, 두 번째 셋방을 구하기 위해 두 아이 손을 잡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사람이 보이면 "혹시 방 나온 집 없나요?" 묻곤 했다. 한 길가에 감나무가 지붕 위까지 덮여 있는 나의 친정집 같은 집이 있었다. 담벼락에는 호박 넝쿨이 뒤덮여있고 고추잠자리가 앉아있는 걸 두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이야~ 고추잠자리 예쁘다."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아주머니께서 나오셨다. 아이들을 보고 "어쩌면 알밤처럼 예쁘기도 해라"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아주머니,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좋지는 않지만 방이 있긴 한데…."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마당에 들어서니 장독대가 보였다. 큰 독 작은 독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 장독대 주위에는 맨드라미, 채송화, 봉숭아 꽃이 우리를 예쁜 웃음으로 반겨준다. 아주머니는 집을 둘러보라고 하며 부엌에 가더니 대접에다가 미숫가루를 타서 갖고 와 마시라고 하신다. 두 아이에게는 작은 수저를 주며 천천히 조금씩 떠서 먹으라고 하셨다.

"아들하고 딸이 쓰던 방인데 모두 제 짝 만나서 나갔고 이제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요."

작은 방 2개와 연탄 부엌이었지만 왠지 친정어머니 집에 온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하던 날, 주인집 아주머니는 새 식구 들어온다고 시루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고 도배도 새로 깔끔하게 해놓고 부엌에 연탄까지 채워놓았다. 하루하루가 친정엄마와 사는 기분이었다. 저녁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우리 부부를 오라고 하더니 어차피 비워 있던 방이니 방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냥 살면서 부지런히 돈 모아 집 장만하라고, 그때까지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자기들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든든하고 좋다고 하시며 불편해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해주셨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동안 전 집에서 겪었던 서러움이 통곡이 되어 나왔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나의 등을 토닥이며 "많이 아팠구나" 해주셨다.

주인 아주머니와 수출품 뜨개질도 하고 밤 깎는 일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했다. 늘어가는 통장을 아주머니께 보여드리면 "부지런히 모으자" 하며 기뻐하셨다. 김장도 함께해서 앞마당에 김칫독을 묻어놓고 같이 먹고 된장 고추장도 친정집처럼 함께했다. 어쩌면 친정집보다 더 편했는지 모른다.



봄이면 감꽃 목걸이를 해서 아이들 목에 걸어주고 아저씨 아주머니 따라 논과 밭에 가서 개구리와 맹꽁이까지 잡고 옥수수를 먹으며 아이들은 하늘에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다. 때로는 평상에 누워 아주머니의 옛날이야기를 귀 쫑긋하며 듣고 도깨비 이야기를 하다가 "어흥~"하고 겁을 주면 한 아이는 아주머니 치마폭으로, 한 아이는 내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어들었다. 겨울이면 아저씨가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얼음지치기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에서 씩씩하게 두 아이가 자랐다. 두 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명절 때 내의라도 사드리면 정말 화를 내셨다. 빨리 돈 모아 집 장만하라고. 그런 두 분의 사랑 속에서 8년을 살다가 지금의 경주로 내 집 장만해서 이사했

다. 집을 샀다는 말에 두 분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다.

이사하기 전, 새로 장만한 집을 보고 싶다며 오셔서 보고는 장하다 하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모든 것은 아주머니 아저씨의 도움이었다고 하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셨다.

이사하던 날, 팥시루떡을 잔뜩 해서 이삿짐에 실어주고 쌀과 된장 고추장까지 챙겨서 실어주셨다. 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하고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셨다. 나도 울고 두 아이도 우니 "좋은 일에 울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주머니는 분명 돌아서서 우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던 방과 부엌을 돌아보며 허전함에 또 우셨을 거다.

'내 삶의 뿌리를 북돋아 주었던 은인.'

'나에게 골 깊은 사람이 되라는 삶의 이정표를 지어준 분.'

그분이 나의 두 번째 셋방 주인이다.

나무에만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늘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알았다. 사람의 그늘은 고되고 지친 사람들에겐 더없는 쉼의 공간이다. 그늘 없는 나무 밑에 사람이 모이지 않듯 사람의 그늘도 넓고 두터울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 마음 편히 쉬어간다. 나도 두 분의 넓고 두터운 사람 그늘을 닮고자 흉내를 내어보지만 쉽지 않다.

그 어릴 때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이 되겠다던 큰아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 씩씩한 군인이 되겠다던 작은 아이는 목회자가 되었다.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엔 아직도 두 분의 따뜻한 정이 가득하다. 잘 자라준 두 아들도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정이 그리워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손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보니 웅장한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2022 신춘편지쇼

입선

두 어머니의 동행

김인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나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다.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 시아버지는 14년 전, 친정 아빠는 6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두 어머니는 홀로, 아니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 샤부샤부지."

다음 주도 그다음 주도 어머니는 매번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셨다. 그때는 어머니가 다른 음식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어떡하냐? 엄마 버스 카드 잃어버렸다."

"어머니, 또요?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버스 카드 만들기를 반복하다가 어머니 댁으로 가서 장롱을 뒤져보니 깊은 곳에서 버스 카드가 나왔다.

"왜 거기서 나올까?"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셨다.

한 번은 어머니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숨기신다고. 일하는 분과 나눠 드시라고 사드린 음식은 썩어서 안쪽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회사 사무실 열쇠도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구르기도 여러 차례, 본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옆에 아주머니가 숨겼다고 말씀하셨다. 모셔다드리는 차 안에서 함께 일하는 분을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 항상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고, 총명하고 생활력이 강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꾸 자기를 쫓아내려 한다, 옆에 사람과 모함해서 자기를 욕한다, 자기만 미워한다는 어머니 불평 얘기는 끝이 없었다.

어떤 날은 아주 괜찮았다. 평소처럼 버스도 잘 타고 밥도 잘해 드시고 전화도 잘하고, 이것저것 챙기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신 걸 거야 생각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극진히 챙겨왔던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어 했다.

결국 일하시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옆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 한번 받아 보라고 하셨다. 결국 회사에서 어머니는 일을 못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셨다. 돈이 없어졌다, 누가 돈을 가져갔다, 하지만 어김없이 집에 가 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돈과 물건들을 발견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친정엄마에게서 봤던 치매 증상이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친정엄마의 치매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던 터라 어머니만큼은 노년에 편안하시길 그렇게 바랐는데 우려했던 순간이 오고 말았다. 검사 결과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밑반찬을 정말 잘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셨던 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날짜와 요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사랑을 쏟아주셨던 나의 어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 댁에 들어와 살던 둘째 동서가 하루가 멀다고 연락했다. 힘들다, 도저히 못 하겠다, 멀쩡한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부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덤덤하게 어머니를 위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다고 했다. 나도 머리로는 잘 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어머니 한 분 못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답이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6년 전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는 정신을 놓으셨다.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던 엄마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병원으로 모셨는데 병원에서 밤새 소리 지르고 욕을 하셨다. 간호사, 요양보호사에게 침을 뱉고 때리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서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다시피 나오곤 했다. 이 집 저 집으로 모시기도 해봤지만 처음 겪는 친정 식구 언니들, 오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친정엄마는 요양원에 적응을 못 하셨다. 가는 곳마다 요양보호사들이 혀를 내둘렀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 요양원에서도 안정제 같은 것을 투약해서 한 번씩 면회 갈 때마다 주무시는 엄마를 보고 돌아와야만 했다.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좋아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삶을 놓아버리신 듯한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제 엄마는 정신이 거의 없으신 듯하다. 이미 커버린 손자, 손녀들 얼굴은 절대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딸들, 아들 얼굴은 알아보고 이름을 얘기해 주신다. 겨우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는 정답을 맞힌 것처럼 좋아했다. 그거라도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 아주 희미하지만 엄마가 딸과의 기억을 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이제 요양원에서 적응을 잘하고 계신다. 활동도 잘하고 재미있게 지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은 장모님도 여기로 모시면 어떻겠냐고 했다. 처음엔 친정엄마가 새로운 곳에서 과연 적응을 잘할까도 생각했지만 고심 끝에 친정 식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같이 너희 어머니 계신 곳이라면 믿음이 간다고 모두 찬성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도 엄마 빨리 모시고 오라고 매일 같이 얘기하셨다.

평생 몇 번이나 만나 봤을까 하는 어려운 사돈 자리이지만 두 분은 함께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저 사랑하는 며느리의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어찌나 친정엄마를 잘 챙겨주시는지 모른다.

예전부터 친정엄마는 "어찌든지 사돈어른한테 잘해라이. 시아부지 없이 혼자 계시는디 니가 잘해야지!" 항상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어머니는 들었던 걸까.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말이 어머니께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대우받지 못했던 엄마에게 동무가 생겼다.

얼마 전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하셨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은 친정엄마 방에 가셔서 얘기도 해드리고, 손도 꼭 잡아 주시고, 간식도 함께 드신다고. 사돈 얼굴도 잊어버린 우리 엄마, 처음엔 낯설어

하던 엄마도 매일 같은 어머니의 관심에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싫지 않으신 모양이다. 엄마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님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엄마지만 어머니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되신다고 했다. 한참 언니인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언니 왔는 갑네?" 그러며 활짝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다. 친정 언니들은 이야기한다. 엄마가 노년에 복이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동무를 만나셨다고 좋아한다.

"엄마, 뻥튀기랑 떡 먹고 싶어."

원장님 통해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그럼요. 어머니, 당장 사서 달려갈게요."

힘들었던 시간과 무거웠던 마음을 뒤로한 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방문하러 가는 날이 너무 좋다. 두 분을 향해 달려가는 길, 막 피어난 봄꽃들이 너무 예쁘다.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여보, 오늘도 두 분이 함께 손잡고 나오시겠지?"

어김없이 두 분은 아니 조금 더 정신이 온전한 어머니께서 보호사님과 엄마의 휠체어를 밀면서 손을 꼭 잡고 나오신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친정엄마를 대신해 어머니는 끊임없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도와주신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은 엄마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신다.

수많은 기억을 지워가고 있지만, 두 어머니는 동행을 시작하셨다.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아마도 두 분은 이제 누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그곳에서 만들어 가실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두 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정례, 정희 어머니. 먼 훗날 나에게도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2022 신춘편지쇼

입선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할 수 있겠니?

박윤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는 두 번째 봄이네요. 딱 5년 전 이맘때에도 사연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부였죠. 그리고 5년이 지나 두 번째 사연을 보내는 지금, 저는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연을 보냈을 때, 정확히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입덧이 심해 휴직을 했고, 출근길 남태령 고개에서 듣던 여성시대를 집에서 듣다 울적해져 임신과 출산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왜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곧 만나게 될 아기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때의 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로 두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지요.

우리 아기는 의식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박이 느려졌고, 응급 수술로 아이를 겨우 꺼내 살려냈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짓는 누군가 잠시 망설였던 걸까요. 울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던 아이는 그사이 뇌 손상이 너무 심해져 스스로 호흡하고, 삼키고, 눈을 깜빡이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식물인간이다, 뇌사다 들어보셨겠지요.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신체 일부분이 활동하고 반사 반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다른 부분이 대신하기도 해서 회복되면서 깨어나기도 하지요. 뇌사는 대뇌, 소뇌, 뇌간 등 그 주변 조직이 모두 역할을 멈추면서 MRI 검사로 살펴보면 뇌파가 아예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호자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아기는 대뇌, 소뇌, 뇌간 등 대부분의 조직이 죽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분의 뇌파가 남아있어 법적인 이유로 뇌사 판정을 받지 못했지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콧줄로 영양식을 임의로 넣어주며, 하루 24시간 삼킴이 되지 않는 침과 가래를 뽑아줘야 하면서 어떠한 의사표현도 반응도 없지만 뇌사 판정을 받지 못해 부모인 저희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뇌사 판정에 대한 해석 범위가 해외보다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기와 그 보호자들에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할 수 있겠니?〉 숨을 못 쉬며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살려낸 한 의사가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환자 본인의 삶은 물론 간병하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삶까지 무너져 가는 걸 보고 그 의사는 '네가 행복을 아는지 확신이 안 간다. 다만 고통은 분명히 느끼는 것 같다. 내가 너를 구한 게 기쁘니?' 글 속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눈을 깜빡이고 소리를 내고 울고 웃는 모두가 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조차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몸이 아파 힘들어도 어떤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내 아이가 인공호흡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아프거나 힘들어도 그저 모든 괴로움을 혼자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에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할 수 있겠니?"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기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걸쳐 작은 관으로 밀어 넣은 영양식을 80ml도 안 되는 그 적은 양도 소화를 못 시켜 며칠에 한 번씩 꼭 게워내고 맙니다.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해 매일 이뇨제를 두 가지씩 먹고, 이틀에 한 번 관장 없이는 배변이 거의 불가능하며, 깜빡이지 못해 늘 떠져 있는 눈에는 백내장과 혼탁이 오고 있습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칼슘의 흡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어떤 곳은 자꾸 부러지기도 어떤 곳은 이미 뼈가 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고작 다섯 살 아이가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힘들지경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연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료진은 아이에게 남은 시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구 하나 명확히 찾아내 주지 못하는 통증이 잦아지고, 컨디션이 유지되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아이는 임종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이토록 약한 가슴뼈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병원에 들어가면 기약 없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며 어쩌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족들과 어떤 마지막 추억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은 잘 보살피는 일만큼이나 잘 보내주는 일, 이별을 위해 준비하는 일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서 상자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좋은 옷감을 사용하는 잠옷 브랜드에서 아이가 떠날 때 입을 옷을 주문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원피스를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항상 집에서 잠옷을 입고 지내다 떠나는 순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어쩌나싶어 가장 편하고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혀주기로 했습니다. 신발도 샀습니다. 걸을 일이 없어 단 한 번도 사지 않았던 아이의 신발을 좋은 수제화로 맞췄습니다. 처음 신는 신발에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엄마 아빠가 없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어려우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준비한 아주 작고 귀여운 찍찍이 신발은 우리 아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발이 될 것입니다.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직접 태명을 수놓아서 만든 매일 덮고 지냈던 담요와 네 살 생일 때 찍은 가족사진까지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세상 어떤 엄마가 나보다 먼저 떠날 아이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을까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끝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내가 죄스럽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집 냉장고엔 이런 아홉 가지 목록이 붙어있습니다.

하나, 아이에게 편지 써주기.
둘, 매일 사진 또는 동영상 찍어놓기.
셋,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사랑하다고 말해주기.
넷, 하루에 열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다섯, 스킨십하기.
여섯, 가족사진 찍기.
일곱, 여행 다녀오기.
여덟, 놀이공원이나 꽃구경 다녀오기.
아홉, 울지 않기.

얼마 남지 않은 아이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 다시없을 우리의 하루, 너무 아깝고 소중한 이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저는 매일 고민하며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아이의 죽음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의 삶을 강렬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어바웃 타임〉에도 이런 대사가 마침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기를.'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우리에게 지금 두 번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보다 더 강렬한 단 한 번을 위해 저희는 매일을 뜨겁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내 딸 연우야, 이 글을 여성시대에서 너에게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듣게 된다면 넌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꼭 들어주렴. 내가 너를 살린 걸 용서해주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도 용서해주겠니? 사랑한다.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늘 그랬듯 앞으로도 항상 너를 사랑할거야. 나를 선택해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사랑한다. 내 딸, 이연우.

2022 신춘편지쇼
입선

52세에 시작한 일

이인순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로

2016년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둘 때만 해도 노안으로 불편해진 왼쪽 눈과 치과 진료를 받으며 좀 쉬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아한 모습으로 느긋하게 향 좋은 차도 마시는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왼쪽 눈 진료를 받으러 간 안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언니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언니가 운영하는 모텔 청소 알바를 권유받았거든요.

"언니네 일하는 아주머니 계시잖아?"

"어.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아주머니가 이제 돌 지난 손자를 돌봐야 한다면서 그만두셨거든."

"경험 없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처럼 하면 돼. 객실 수가 적고

할 일도 많지 않아서 하루 5시간 정도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어.”

언니는 제가 눈치가 빨라서 일하는 요령을 빨리 터득할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시간을 배려해준다고도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텔에서 청소 알바를 하겠다고 하니 짜증부터 내더군요. 무슨 모텔 청소냐고요. 남들 같으면 본인이 직접 모텔을 운영한다고 할 나이에 왜 남 밑에서 일할 생각을 하냐고도 했습니다. 친한 이웃들도 일이 생각보다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며 미덥지 않아 하는 눈치였고, 다들 차라리 병원에 다시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쉰두 살이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모텔’이라는 장소 때문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불편한 시선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 오기도 나고 속상했습니다. 한참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이 출근한 후 모텔 청소 알바를 하되 시간을 잘 안배해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집에 오자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5시간 알바니까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모르는 척 말을 안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청소 알바. 처음 출근했던 날이 떠올라 웃음부터 나옵니다. 모텔 입구에서 잠시 서성거리며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안내실 CCTV로 모텔 입구를 보고 있던 언니가 들어서는 저를 보고 “무슨 죄지었냐? 두리번거릴 일이 뭐 있노? 하여튼 편견이 문제야~” 라고 말했고, 저도 멋쩍게 웃으며 “그러게. 일해서 돈 벌려고 왔는데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보지? 누가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닌데. 언니가 권하긴 했지만 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말이야.”

“아니 다행이다.”

호탕하게 웃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텔 건물 구조와 내부, 여러 가지 비품과 소모품들이 들어있는 창고와 세탁실, 보일러실 등을 둘러보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너는 눈치가 빨라서 말 안 해도 잘하겠지만, 복도에서 손님을 만나도 먼저 인사하지 마.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언니의 말에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언니가 집안 행사나 모임으로 자리를 비울 땐 모텔 안내실도 맡았습니다. 낮에는 손님이 거의 없으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면서 오랜 인연을 믿고 맡긴다는 언니의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네 모텔은 지은 지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새로 지은 최신식 건물과는 시설 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 이유로 숙박비가 저렴해서 달세를 내며 장기 투숙하는 손님이 많았지요. 장기 투숙 손님들은 사생활이라며 청소를 본인들이 직접 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달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청소해야 할 방이 몇 개인지 파악한 후 낮 시간에 대실을 받을 방부터 청소합니다. 먼저 창문을 열고 가운·수건·이불과 베개 커버 등을 오염의 정도별로 분리하여 세탁실로 옮겨 돌려놓고 쓰레기 분리해서 치우고, 물이나 음료를 냉장고에 채워두고, 청소기 밀고, 걸레질한 다음 욕실 청소를 합니다. 커버를 벗긴 이불은 옥상 빨랫줄에 널어 일광욕시키고 건조기에서 건조한 세탁물도 빨랫줄에 널어 다시 한번 햇빛 구경을 시켰습니다. 언니는 제가 없는 일도 만들어 한다면서 괜히 좋으면서도 미안하니까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모텔 청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더럽고 번거로운 것을 치우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변



기에 꽁초나 쓰레기를 버려서 막혔을 땐 하다 하다 안 되면 다 뜯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했고, 새빨간 립스틱을 하얀 가운이나 수건에 묻혀 놓으면 손으로 싹싹 문질러 빨아야 했습니다. 온수를 밤새도록 틀어 놓고 퇴실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켜 놓고 퇴실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빈 객실을 돌면서 세탁물을 수거하다가 화장대에 있던 남성 화장품의 뚜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찾다 찾다 언니에게

물었는데 "야, 말도 마. 가끔 화장품을 들고 가버리는 손님이 있어서 아예 뚜껑을 열어놓았어." 언니의 대답이 배꼽을 잡게 하더군요.

그래도 주어진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긴장감이 적어서인지 모텔 청소 일은 생기 있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옥상에서 한눈에 다 들어오는 시가지와 탁 트인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저 높은 하늘나라 어디쯤에서 우리 아버지와 남동생이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은 감성에 젖기도 했어요.

따뜻하고 기분 좋았던 손님과의 추억도 있습니다. 인근 군부대에 출장 오셨다던 중년 아저씨는 객실에 오래된 운동복 바지를 두고 가셨는데 딱 보기에도 오래된 옷이라 버려두고 가셨나 싶어서 분리수거함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모텔 안내실로 전화하셔서 주소를 불러줄 테니 그 운동복을 택배로 착불 처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옷이 너무 낡아서 버리고 가신 줄 알았다고 찾는 대로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첫 아이가 첫 월급 받아서 사준 옷이라서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옷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데, 수화기 너머의 아저씨 목소리가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바로 분리수거함에서 운동복을 찾아 깨끗하게 세탁해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드렸고 그분은 그 후로 출장 때마다 오시는 단골손님이 되셨지요.

코로나19로 3년째 지역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그전까진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지역 축제 기간이라 모텔도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투숙객들과의 추억도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여행객들과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로 손짓과 발짓 온몸으로 표현하고 휴대폰 번역기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엔 대실 손님으로 온 지인을 발견하고 잽싸게 자리를 피했는데 굳이 먹을 것까지 들고 안내실까지 찾아와 궁금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던 경우도 있었고, 청춘 커플은 피임기구 챙기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해군 신병들이 입대하는 월요일 전날, 일요일 오후엔 입대하는 청년과 부모님이 어두운 표정이라 짠하기도 했고, 우리 아들도 복무 중이라 더 애틋했습니다.

이렇듯 어느 지역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돌이켜보면 출퇴근할 때마다 늘 모텔 입구에서 주위를 살피며 드나들었고 제가 하는 일에 늘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편견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텔 청소냐며 걱정하던 지인들의 얼굴도 떠올랐고, 힘들다고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게 될까 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받는 일도 많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애환을 몸소 경험하면서 저 자신이 좀 더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친 이후로는 지역 축제도 취소되었고, 모텔 언니도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언니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며 용돈까지 챙겨주고 새로운 알바 자리도 소개해주셨지요. 요즘도 저는 언니의 소개로 매일 5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일터에 드나듭니다.

모텔, 병원, 아파트, 회사 등등 여러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 봅시다!

2022 신춘편지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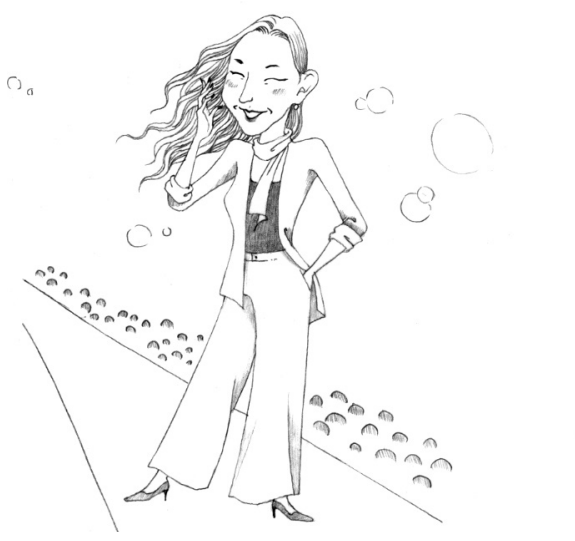
입선

제2의 인생

이영미 | 서울 금천구 시흥동

스물다섯 살에 들어간 첫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의 대표와 직원으로 만났고,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고작 스물여덟 밖에 안 된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도 없이 사업을 벌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요. 사생결단하고 부리는 제 고집에 손을 드실 수밖에 없었지요.

어른들 눈에는 뻔히 보였던 걸까요. 결혼생활 내내 제대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저것 부업을 해서 생활했고 시누이님이 간간이 보태주셨지요.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남편은 점점 술에 의존했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이었을까요 술주정이 심해지면서 딸과 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많이도 냈습니



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혼하고 딸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지요.

다행히 저를 아끼시는 시누이님 도움으로 멸치국숫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여 국숫집을 해 오다가 단골손님으로부터 시니어 모델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침 하고 있던 SNS에서 시니어 모델 배우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고심 끝에 가입했고 2020년 10월부터 시니어 모델과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토요일에만 수업을 받았어요.

2021년 1월부터 다니던 곳에서 두 번째 제작하는 영화 '1958'에서 왕순자 역을 맡았는데 김문옥 감독님으로부터 "예전부터 연기를 했느냐"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1월 중순쯤 가게 건물주로부터 건물이 노후해서 원룸으로 새로 지을 거라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가지고는 그 무엇도 새로 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눈물로 정들었던 그 많은 집기를 정리하고 주변에도 나누어주었습니다. 2월 28일, 가게 정리를 다 끝내고 망연자실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딸이 씩씩하게 가게로 들어서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불쑥 내밀며 "엄마, 국수 가게 졸업을 축하해!" 하며 어깨를 주무르며 "그간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하면서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순간 목젖까지 차올라 있던 불안감과 서러움이 툭 무너져 내리면서 안도감이라고 해야 하나 휘청거리며 갈팡질팡하던 두 발이 가지런히 땅을 밟는 순간으로 바뀌더군요.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늘 그렇게 저의 버팀목이었고 등불이고 사는 이유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아이 같은 늙은 엄마에게 엄마 같은 서른일곱의 딸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이 아리고 안타깝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에는 오롯이 모델 수업과 배우 수업, 영화 촬영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마도 제 삶의 터닝 포인트는 가게를 접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가게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무대에서 워킹을 할 때면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무대 위를 유영하는 듯했습니다. "키는 작지만 멋있고 카리스마 있다"는 말을 동료 모델한테 들으면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며 머리를 곧추세우곤 합니다. 늘 운동화만 신던 발에 7cm의 높은 구두를 신고 걷는 파워워킹은 저의 자존감을 있는 대로 높여주었습니다. 모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에 제 워킹 영상이 나가는 바람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영화 촬영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감독님의 '레디~ 액션!' 구령에 제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고, 생소했던 카메라와 음

향 마이크, 조명 아래서도 주저 없이 영화 속 인물이 되곤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촬영이 다음 날 새벽 4시가 되어 계획된 분량을 마치기도 하지만 그 고된 강행군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트렁크 가득 옷이며 소품을 챙겨 끌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운지요. 제주 곳곳을 누비고 지방 촬영지를 누비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이어지는 영화 촬영. 그 시간을 되짚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낍니다. 제 안에 이런 끼가 숨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7월 말까지 촬영한 영화 '1958'은 12월에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시사회를 가졌고, 2022년 4월 15일에 광주광역시 충장로 롯데시네마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곧이어 '이연'이라는 영화도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지역 홍보 영상이나 단편영화, 독립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참으로 사람의 인생길이란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늘 일에 파묻혀 시들어가던 제가 60대 중반에 배우로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꽃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Reiner Kunze)가 쓴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 시가 지금의 저를 가리키는 것만 같아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질까요?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동고동락 자동차

고봉구 | 전남 목포시 복산길

내 인생의 두 번째 승용차는 2006년 겨울에 만난 H사의 중고차다. 2004년식 중고차.

그 무렵 첫 번째 경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용감하게 멈춰 서지 않았더라면 인연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몹시도 추웠던 그해 겨울은 회사를 그만둔 후였고 장사한답시고 이리저리 떠도느라 몸보다 마음이 더 분주하던 시절이었다.

물욕이 별로 없는 내게도 그 차는 꽤 멋져 보였다. 묵직한 중량감을 가졌으면서도 멀끔한 차체가 마치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어느 장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차를 산 후 남한강변을 따라 아내와 함께 이천에 사는 동생네를 다녀오기도 했고 명절에 먼 고향길을 무리 없이 다녀오기도 했다. 리모컨으로 자동차 문이 일시에 잠기는 것도 좋았고 차 내부 천장이 열리

며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좋았다. 지금은 이 기능이 안 되는 차를 찾기가 더 힘들지만 말이다.

그러나 당시 내 삶은 자동차 같지 않았다. 장사는 자리를 잡지 못해 툭하면 옮겨야 했고 집에 매일 들어갈 수도 없었다. 빚이 생겼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늘 잠자는 시간이 모자라던 나는 말라가는 몸처럼 마음도 여위고 신경은 점점 예민해져 갔다.

결혼하고 아내를 얻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지만 아이까지 얻었음에도 나는 세상을 부유하며 떠도는 사람 같았다.

뭐 대단한 성공이나 부를 탐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늘 내게 빈손만 쥐여주고 어디론가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몇 해를 더 보내고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새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빠듯한 돈 때문에 가게 임대 계약만 해놓고 거의 혼자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 몸이 무거운 아내는 집에 있었고 나 혼자 집에서 두 시간도 넘는 곳에서 시멘트를 직접 사다 날라 콘크리트를 치고 배수관을 깔았다. 싱크대와 간택기를 들이고 샌드위치 패널로 주방 옆에 쪽방을 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비교하고 차에서 쪽잠을 자며 창고 같은 빈 가게에서 작업으로 밤을 새웠다.

아내와 아이가 보고 싶었고 그보다 더 큰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 싸움을 혼자서 벌이고 있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좌탁들을 들이고 카운터를 놓았다. 주문한 간판이 가게 전면에 걸리고 불이 들어오자 처음으로 호흡하는 아기처럼 가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개업일을 잡고 주변에 현수막을 붙이고 신문에 전단을 끼워 돌리

고 개업 전날엔 떡을 돌렸다. 희망과 불안이 들숨과 날숨처럼 머릿속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손님이 올까. 아니 손님이 와줄까. 첫째 아기를 병원에서 처음 보았을 때 '과연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달려 있을까' 걱정하던 초보 아빠의 심경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한다고 세상 모든 일이 다 잘되진 않을 테지만, 안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각오는 되어 있었다.

개업 날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고, 친척분들도 인사를 오셨다. 부모님께는 회사에 사표를 낸 것도 한참 동안 비밀로 했었고 식당을 한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렸다. 속으로야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만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하셨다. 아마 그때의 나는 하느님도 못 말렸을 것이다.

주방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어서인지 낮 12시가 되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극도의 긴장과 함께 혈관 속의 피가 속도를 높이는 것만 같았다. 좌탁의 손님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듯했지만 손님들에겐 수많은 날 중의 하루였을 것이다. 하긴 누구에겐들 소중하지 않은 하루가 있을까. '당신들이 밥을 먹어야 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빵이라고 하지 않던가.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설거지를 돕겠다며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잠시 주방 뒷문으로 돌아 나왔다. 그리고 밖으로 통하는 문턱에 걸터앉아 홀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어른이 되어서는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뒷문 앞에 주차된 내 차가 가림막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감정만큼 눈물은 폭우처럼 쏟아졌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폭우를 맞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화장실에서

마른세수를 몇 번이나 하고 겨우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내 눈물을 본 것은 오직 내 차뿐이었다.

명색이 승용차인데 시멘트 블록이며 건축 자재,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날라주었고, 먼지 뒤집어쓴 채로 잠도 재워 주었다. 그뿐인가. 식당을 시작하고는 흙 묻은 채소 더미도 마다하지 않고 십수 년째 나르고 있다. 처음 몇 번 살짝 긁힌 것을 빼고는 자잘한 접촉 사고도 없었다. 오래 타다 보니 때로는 차가 내 외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도 세월에는 어쩔 수 없는지 차체 구석구석 부식이 생기고 전방 라이트 커버는 백내장처럼 부옇게 변색이 되었다. 어쩌다 내 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차 오래 타셨네요. 이제 바꿀 때가 됐네요"라며 덕담 아닌 덕담을 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 녀석이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

어쩌면 사람보다 정직하고 충직하고 과묵하기까지 한 이 녀석을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설명할 자신이 없다.

삶은 오묘하다. 나조차도 잊고 지낸 시간을 차를 보며 떠올리게 되고, 쓰디쓴 날들을 글로 적으며 낡고 해진 기계 뭉치에 마음의 빚을 쌓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올봄엔 벚꽃이 내리는 길을 이 녀석과 달리고 싶다. 지는 것이 아름다운 게 어디 벚꽃뿐이랴.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과꽃과 수국

이영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다들 잘 지내지? 나는 괜찮고. 가만있어 봐. 엄마 바꿔줄게. 이봐 빨리 전화 받아봐."

25년간 늘 같은 내용이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자 나의 두 번째 아버지.

내 나이는 50 하고도 5년을 더해야 하는 지금, 나의 첫 번째 아빠는 내가 고등학생이 되는 걸 못 기다려주시고 중학교 3학년이던 5월 하늘로 이사를 가버리셨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병으로 늘 집에 계셨다. 엄마는 그때부터 장사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노릇을 하셔야 했다.

엄마가 장사하던 곳은 동네의 큰 시장이었는데 주위에 비슷한 처지

의 아주머니들이 많이 일하셔서 그런지 나는 우리 집 상황이 크게 나쁘다 느끼지 못했다.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삼 남매가 학교에 다녀오면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린 나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 바뀜이 그냥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 집에 놀러 갈수록 나는 우리 집 상황이 편치 않고 뭔가 부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마도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그래도 엄마의 가게가 제법 잘 되어서 아버지 병원비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상황에도 나는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우리 삼 남매 행색도 멀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여름 끝자락, 하루 사이에 나는 한 친구가 참으로 부럽고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는 판사 아빠와 우아한 원피스에 예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는 엄마, 곱게 생긴 언니를 둔 귀여운 막내딸이었다. 집은 또 어찌나 근사한지 대문도 동네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컸다. 대문을 통과해서도 한참 큰 나무들과 넓은 잔디밭을 구경해야 살림집이 나왔는데 1층은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큰 소파 앞에 놓인 TV는 또 어찌나 크던지 부엌의 커다란 식탁 옆 의자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친구 방은 2층이라기에 따라 올라갔는데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큰 방에 예쁜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더 예쁘게 꾸며진 언니 방도 구경하고, 손 씻으러 간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새하얀 욕조와 세면대가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다.

그렇게 한참 집 구경에 홀려있는데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났다. 친구가 벽면에 붙어 있던 다이얼이 없는 전화기를 받더니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했단다. 정말 신기했다. 1층 부엌에서 2층 딸 방으로 전화를 사용해서 부르다니…. 그게 인터폰이었다는 건 어른이 되어서 알았다. 다행히 밥과 반찬은 우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놀라지 않고 먹었던 것 같다.

그렇게 환상 속의 친구 집을 떠나 뚜벅뚜벅 걷다 보니 골목길에서 쑥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낡고 녹슨 대문의 우리 집이 있었다. 문을 열고 깨진 유리창에 노란 테이프를 두른 거실 창을 열고 책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신발을 신고 두어 계단 내려가야 있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마당을 내다보니 화장실이 보였다. 늘 가기 싫은 곳. 아빠는 누워 계시고 엄마는 없고,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작아졌다. 마당 한쪽에 시멘트로 경계 지어놓은 수돗가에 꾸부정히 앉아 한바탕 세수로 그런 마음을 씻어보았다.

작은 마당에 아빠가 손수 지은 강아지 집에서 백구와 백구의 새끼들이 뒤엉켜 노는 걸 보고 있자니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이 하나둘 씩 보이기 시작했다. 보라색 꽃들이었는데 무슨 꽃일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과꽃이야. 우리 딸 보라고 아빠가 심은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작은 마당에도 제법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장독대 옆 큰 오동나무는 나에겐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특히 여름이면 녹색의 징그러운 꼬불이 벌레가 나를 놀라게 했다. 아빠한테 제발 저 나무 좀 없애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아빠는 "우리 딸 시집가면 저 나무로 멋있는 장롱을 만들어줄 건데" 하셨기에 나는 또 정말 그런 소임을 해야 하는 나무인가 싶어 눈감아 주기도 했다.

겨울이 지나 봄바람이 시작되면 달밤에 수줍게 하얀 꽃잎을 보여주던 우아한 목련꽃도 좋았고, 봄 자락 끝에 진한 향기를 품어내던

연보랏빛 라일락은 나의 최애 나무가 되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마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텅 빈 마당에서 라일락 향기가 느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듬해부터는 고등학교 담장에 군락을 지어 흐드러지게 피어서는 이른 아침 등굣길에서부터 나를 참 많이 위로해주던 나무. 지금도 어쩌다 아파트 단지에서 라일락 향을 맡으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따뜻해진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심어주셨던 과꽃만은 못한 라일락은 요즘도 눈에 가끔 띄는데 과꽃은 하늘나라에만 피는 꽃인지 그 후로는 보질 못했다. 물론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 그 마당에 정말 나를 위해 피어있던 그 과꽃은 영영 내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꽃인 듯하다.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강화도의 제법 큰 텃밭에는 감자 고구마 상추 고추 무 배추 갖가지 먹을거리가 자라고 있다. 텃밭 입구부터 빨간 들장미가 화사하게 반겨주고 엄마는 밭일이 고단할 텐데 그래도 좋으시단다. 새아버지와 소일거리 삼아 가꾸는데 시간도 잘 가고 수확의 기쁨이 너무 크단다. 오늘은 특히 하얀 수국이 너무 예쁘다고 자랑하셨다. 엄마의 어린 시절 고향에 많이 피었던 수국을 새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심어주셨다고 "정말 예쁘지 않니?" 하며 기뻐하신다.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보다 더 긴 세월을 새아버지와 살아내시고 있다. 내 나이 서른에 엄마는 '구해줄 사람'이 생겼다며 지금의 아버지를 소개하셨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의 고단함은 어렸던 나도 느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여장부 기질로 우리 삼 남매 잘 키워주고 공부 다 마치게 해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시더니 엄마의 쓸쓸한 옆자리가 더 크게 보이던 차에 친구분 소개로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셨다.

처음엔 '아버지' 소리가 어색했지만 늘 엄마께 한결같이 잘해주시는 모습에 이젠 감사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아버지도 사별하고 근 이십 년 홀로 지내시다가 엄마와 함께 사시니 처음 인상과는 달리 건강도 좋아지고 멋쟁이 노신사로 변하셨다.

'아빠가 살아 계셨음 이만큼 주름이 생기셨을까? 이만큼 백발이 되셨을까?' 상상해보지만 나의 아빠는 그냥 그때의 40대 모습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지금 아버지께서도 우리 삼 남매에게 늘 마음 넉넉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나의 큰딸 결혼식 날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첫 손녀딸이니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아마 강화도 텃밭엔 나를 위한 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엄마를 위한 수국은 만발하니 두 분 그렇게 건강하게 정 나누며 오래오래 지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하늘에 계신 아빠도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언젠가 다 같이 만나 과꽃과 수국 천지인 정원 속을 함께 거닐 날이 오겠지 상상해보면서 오늘도 늘 같은 대화지만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쭙는다.

"아버지~ 저예요~."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두 번째 부모님

김효정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올라가서 고모 말씀 잘 듣고, 오빠가 옆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효정이 보러 올라갈게."

오빠를 따라 기차에 올라탄 저는 차창 밖에 있는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갖고 싶었던 롤러스케이트를 드디어 갖게 됐다는 생각에 즐거워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 초등학생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오빠와 서울에 올라와 친척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터를 잡으신 부모님과 그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빠, 저, 여동생. 행복한 다섯 식구로 살다가 이렇게 이산가족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는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었겠죠. 매일 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등학생인 오빠가 해줬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네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하실 거야. 엄마가 슬펐으면 좋겠어?"

저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방학 되면 오빠가 꼭 엄마한테 데려다줄게."

엄마가 슬퍼하지 않도록 그 이후로 독하게 버텨냈고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친구 없이 혼자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저에게 어떤 여자아이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거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롤러스케이트를 한쪽 발에 한 개씩 나눠 신고 아파트 주차장을 신나게 내달리며 친해진 그 아이와 저는 친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현정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서울깍쟁이였고 혼자 자란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정이는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현정이와 한참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 밥 먹는 시간도 까먹었는데 항상 오빠가 절 데리러 오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사업하는 부모님이 항상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버리면 현정이는 혼자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현정이의 외로움과 제 외로움이 맞닿았던 건지 중학생이 된 후부터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같은 학교였지만 같은 반은 아니어서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반에 놀러 갔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밥을 먹었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현정이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정이 부모님도 입

짧고 조용한 현정이가 저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밝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저에게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걸 알고 계시던 현정이 부모님도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셨던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입시 전쟁을 거쳐 대학생이 되었고, 현정이는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놀던 것이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노는 것으로 변했고, 선생님 뒷담화하던 것이 직장 상사 뒷담화로 바뀌었고, 밤 10시 통금시간이 아침 10시로 바뀌었습니다. 현정이 부모님은 엄하셨지만 저와 함께한다면 뭐든 언제든 프리패스였어요.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셨고 믿어주셨어요. 저도 현정이 부모님을 진짜 믿고 따랐고요.

그러다 현정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고, 저는 취업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던 우리는 데이트 때문에, 먹고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분기에 한 번 만나는 게 고작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언제 만나도 항상 그대로 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간만에 만난 현정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의 온라인 부분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는 근황을 말해줬고 요즘 온라인 매장이 뜨는데 잘 생각했다면서 저도 응원해줬죠. 그런데 현정이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부모님 사업 물려받는 금수저 표정이 왜 이래?"

"나 오빠랑 또 싸웠어…."

교제하고 있는 오빠와 자주 다툰다더니, 한동안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이구나 싶었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툰다며 현정이는 이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좋은 사람이고 돈이야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헤어지지 말고 다시 잘 만나봐."

저는 오빠와 헤어지지 말고 다시 잘 만나보라고 현정이를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현정이는 다시 잘 만나보겠다고 했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됐습니다. 현정이와 또 결혼 문제로 다툰 그날, 오빠는 스스로 세상을 버렸고 오빠의 극단적 선택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현정이는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정이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되어서 매일 집 근처로 찾아가 머리를 쥐어짜내며 재밌는 이야기를 했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현정이의 웃는 얼굴을 봐야 안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미뤄둔 일을 처리해야 해서 밤샘 근무를 하느라 딱 하루 현정이를 보러 가지 못한 날 밤, 현정이는 오빠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장례식과 발인까지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현정이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그날 현정이에게 가지 않았는지, 왜 오빠와 헤어지라고 말하지 못했는지 후회됐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좋았어도 부모님도 나도 버리고 쫓아갈 정도로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거였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서 매일 술을 마셨고 그럴수록 현정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지내던 어느 날, 현정이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초췌해진 얼굴에 생기 잃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된 현정이의 마지막 글을 받아서 들고 전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온라인몰 접속 방법, 온라인몰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예금·적금 들어있는 은행과 비밀번호, 보험 가입 내역과 담당 보험사 직원 연락처, 지인에게 빌려준 돈. 그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버티려고 했는데 못 버티겠어. 사랑해, 효정아! 미안해. 네 덕분에 행복했어. 내 가장 친한 친구. 안녕.〉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저에겐 두 번째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매년 현정이 생일과 기일 이렇게 두 번은 부모님과 함께 현정이를 만나러 갑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부모님은 세상 먹먹한 눈으로 현정이를 바라보고 애지중지 쓰다듬고 곁에 한참을 계시다가 일어나세요. 그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근황 얘기도 합니다. 늘 살 빼라는 얘기, 건강 관리 잘하라는 얘기, 시집가라는 얘기 많이 듣고 옵니다. 부모님이 만날 때마다 용돈도 주시는데 거절하면 서운해하세요. 딸내미 용돈 주려고 돈 버는데 이거 안 받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며 꼭 손에 쥐여주세요. 그럼 저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인사드리고 넙죽 받죠.

많이 부족하겠지만 자기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현정이가 부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딸이 많이 사랑합니다.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난이대(受難二代)

홍원주 | 경기도 양평군

외국 어느 유명 작가가 96세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노벨문학상까지 받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누린 그였기에 더욱 다가옵니다. "내가 96년을 사는 동안 짜릿하고 황홀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겨우 6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분도 그렇게 평을 하는데 나 같은 평범한 인생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긴 저도 나름대로 험한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 겨우 초등학교만 나와 주경야독하였습니다. 나중에 강사가 되어 강연도 하였고 외국까지 초청되어 사자후를 토하며 박수갈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로 수난을 당하였으니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참척을 당하였으니 이 세상 형벌 중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 틀림없습

니다.

나의 아버지는 좌우익 사상전인 '여수·순천 사건'에 장남을 잃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야 아버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얘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로 건너가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수 관공서를 삽시간에 점령한 반란군은 순천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정부는 사단 규모의 병력을 급파하여 곡성에 진을 치고 진압을 개시했습니다. 병력과 화력이 열세인 반란군은 숲이 많은 구례 방향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반란군들은 낮에는 숨어 있고 밤이면 민가로 내려와 식량 약탈과 포섭을 병행하였습니다. 반란군들의 세력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층을 포섭하라는 새로운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지역책들은 구례읍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본인 가족이나 본인들도 만나지 않고 입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대대적인 공비 토벌 작전이 개시되었지요. 그리고 지역책 집에서 입당 명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러 흘리고 산으로 도망을 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구례중학교에 계엄군의 트럭이 들이닥쳤습니다. 3학년 교실에 총검을 겨눈 군인들이 명단을 보고 학생들을 북어 엮듯 묶어 트럭에 실었습니다. 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부대에 가서 조사한다는 트럭은 부대로 가지 않고 섬진강변 모래톱으로 갔습니다.

"너희들은 공산당에 입당한 죄로 즉결 처벌된다. 모두 보자기로 눈을 가리고. 사격 개시!"

군인들의 총구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비명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시신을 두고 떠났습니다. 까마귀 떼는 허공을 그리고, 무심한 섬진강물은 하동포구로 흘러갔습니다.

면 소재지 학교에 소개되어 있던 주민들 앞에 지서 주임이 나타났습니다.

"호명된 학부모들은 지금 빨리 섬진강변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시오."

호명된 학부모들은 실신하였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지요. 읍내에서 하숙집과 학교만 오가던 학생들이 언제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말인가요.

실신을 거듭하던 학부모들은 신발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섬진강변으로 달렸습니다. 까마귀 떼가 맴도는 그 아래 피칠갑이 된 학생들의 시신이 엉키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졸도하다가 깨어 시신들을 분리하였습니다.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장남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졸업만하면 군 서기나 교사는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공부 잘헌 죄다. 무식해야 사는 건데!"

장남을 공동묘지에 묻은 아버지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금학령을 내렸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식들은 퇴학시키고 입학할 자식은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있던 중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61세, 어머니 나이 46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장남이 환생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장마에 호박 크듯 자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때는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열여섯이 되던 해 세상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참척의 고통을 17년이나 혼자 끌어안고 살다가 한 많은 삶을 마치신 겁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나도 결혼하여 2남 1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IMF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입대를 자원하였고 딸만 대학을 보냈습니다.

속이 깊은 막내아들도 군대를 자원하였습니다. 완전군장으로 훈련하다가 쓰러진 동료의 군장까지 메고 완주하여 특별휴가도 나온 배려심 깊고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아들은 제대하고 당진에 있는 OO제철소에 입사했습니다.

2013년 작약꽃 향기가 진동하던 5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닭장을 돌아보고 모이를 주고 있는데 아내가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죽었대요. 며느리 전화 좀 받아봐요."

"아버님, 우리 그이가… 텔레비전 좀 켜보세요…."

급히 텔레비전을 켜고 보니 자막에 막내아들 이름이 올라오더군요.

"오늘 새벽 근로자 5명이 가스 사고로 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내외는 실신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에 이어 나까지 참척이라는 형벌을 받다니 말입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당진 OO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취재 나온 기자들과 동료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 근로자 가족들이 다 모이자 회사 관계자는 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내아들은 유리관에 잠자는 듯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5일 전, 어버이날 용돈도 보내고 얼마 있으면 정규직이 된다고 좋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아들의 사연을 듣고 다시 한번 실신했습니다. 막내아들은 그 시간에 근무 시간도 아닌데 동료가 아프다고 순서를 바꾸자는 전화를 받고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 세상과 작별했는데도 문상객 사이를 뛰어다니는 철없는 7살 손자와 5살 손녀를 보고 다시 졸도했습니다. 무려 17일간이나 회사와 사인 규명을 놓고 싸우다가 산재 판정을 받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홍성 화장장에서 아들의 35년의 육신의 삶은 30분 만에 백자 항아리에 한 줌의 재로 담겼습니다. 양평 추모공원으로 오는 버스에서 나는 항아리를 안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장남을 잃고 17년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추모공원에 묻고 나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자괴감과 수난이대를 안긴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요즘 피에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웃고 살고 밤에는 가슴을 쓸어안고 몸부림칩니다. 동료를 대신하여 사지로 뛰어든 막내아들은 천사가 되어 웃고 있으리라 믿으며 두 번이나 당한 참척의 일지를 맺습니다.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정보다 삶보다, 핏줄

안현주 |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이 넘의 질긴 정 때문'이라며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던 내 엄마. 그 곁에서 '그보다 더 징한 것은 핏줄이여!' 하며 해장국을 끓여 내시던 나의 할머니. 그로 인해 새카만 그을음으로만 남은 나의 유년 시절 쓰라린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른 건 한 남자의 등장 때문이었다.

"물어물어 찾아왔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이십여 년만의 해후였지만 나는 그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들어서자 반지하 사글셋방은 더 옹색해 보였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너와 살고 싶어 하신다. 편마비가 온 뒤로 많이 허약해지셨어. 네가 모셨으면 하는데…."

애써 나의 눈을 피하며 말꼬리를 흐렸지만 자신의 병든 아버지를 위탁하러 온 남자에게 부끄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곰팡이 핀 신발장 위에 새하얀 봉투를 내려놓고 나가는 남자에게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며 고개를 숙였다. 찬물을 끼얹을까 소금을 뿌릴까 하는 마음과는 달리 내 손은 남자가 놓고 간 봉투 속 빳빳한 현금을 헤아리기 바빴다.

머릿속은 그보다 더 재빠르게 돌아갔다. 이복 오라비라는 남자는 필시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간 것이었다. 그래서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낳아준 엄마를 알코올중독자로 만들었던 이. 나를 키워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육시럴 놈'이라고 욕하던 사람. 그러니 설령 내게 성씨를 부여해 준 생부라도 이제 와 모시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지 2년여. 급식조리사 일과 식당 일을 밤낮으로 해 보아도 월세를 미루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한창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게 학원은커녕 참고서 하나 사줄 수 없는 현실이 그 무엇보다 괴로웠다.

사흘 밤낮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구겨버린 연락처를 다시 집어 들었다.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아니 연락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다음날 당장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쉰에 가까운 나이이거늘 아버지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번이 달랑 두 번째였다. 하나뿐인 손녀딸이 사돈에게 천애 고아로 낙인찍힐까 전전긍긍하셨던 외할머니는 빌다시피 하여 아버지를 혼주석에 앉혔다. 큰 오라비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오셔서는 사위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에험 에험' 헛기침만을 하던 낯선 아버지. '이럴 바엔 차라리 낯 모르는 이에게 사례하고 아버지 역할을 부탁할 걸…' 하는 후회만 남았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늙어버린 아버지. '암만 돈이 있어도 '사'자 직업을 가진 잘나가는 아들들이 있어도 세

월 이기는 장사는 없구나' 싶어 가엾어지던 것도 잠시.

"쯧쯧쯧…. 제 어미 닮아 이쁘장하던 얼굴이 왜 그리된겨? 나이보다도 배는 늙수그레하네."

어눌한 말투로도 악담을 쏟아내는 아버지를 보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무려 20여 년만의 재회였다. 딸자식 만들어만 놓고 기별 한 번 없던 양반이 병든 몸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라고는 가슴을 쿡쿡 찌르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날부터 집은 지옥이 되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보다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워 온 나날보다 더 그악스러운 아버지와의 동거. 대기 순서까지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유명 요양병원에서 왜 쫓겨났는지, 왜 웃돈까지 준 간병인이 서넛이나 도망갔는지, 퍽 많은 재산까지 물려받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왜 내게 버렸는지 단 하루만에 알음하고도 남았다. 남의 집 안방을 떡 하니 차지하고도 방이 좁네, 반찬이 짜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물론 두 아이마저 비쩍 말라갔다.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참자!'

'아이들 학원이라도 하나 보낼 수 있잖아. 버텨야 해!'

나는 돈을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니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 목숨 같은 나의 아이들에게 성적이며 예법까지 호통치며 '진짜 할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만은 너무도 싫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다. 하다 하다 지쳐 가끔 "아버지! 아버지는 염치란 것도 없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들고 아픈 지금에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딸인 건데요?" 하고 언성을 높이면 아버지는 외려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암만 기르지 못했다 쳐도 내가 니 낳아 준 아비 아니가? 아부지가 이 정도도 하면 안 되나? 우야든간 아부지 없이는 니도, 니 얼라들도 세상이 없는 기다!"

아비의 책임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 도리를 운운하실 때마다 숨이 막힐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 더러운 이 악연을 끊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내 곱디고운 아이들을 위해 견뎌내야 했다. 매일 새벽 네 시 반에 일어나 '전기밥솥 밥은 내 맛도 니 맛도 아니'라는 아버지를 위해 새 밥을 지었다. 칙칙칙 압력밥솥이 하얀 연기를 내뿜을 때면 주르륵 눈물이 나오고는 했다. 오라비가 날짜뿐 아니라 시간의 어김조차 없이 부쳐주는 생활비처럼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켜켜이 쌓여갔다.

당신밖에 모르는 고약한 아버지와 한집에서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우울증이 생기고 말았다. 그 얼마 후엔 자궁에 혹까지 생겨 수술대 위에 누웠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내야 했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내게 남은 건 굵고 깊게 패 버린 주름과 걸어진 말본새 그리고 화병뿐이었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왕성하던 식욕은 짧아졌고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도 기운을 잃어갔다. 모든 것이 귀찮은지 나와 아이들에게 거침없이 내뱉던 잔소리도 잦아들었다.

허나 당신의 손이 찾아올 때면, 아버지는 곧은 모습을 보였다. 자주 놓쳐버리던 정신도 아들 며느리 앞에서는 쾌청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위선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쐐기처럼 박아주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버렸다던 아버지와의 두 번째 이별은 불현듯 찾아왔다. 여느 날처럼 새벽에 아버지가 드실 물을 받아 안방에 들어서는데 묘하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입과 코에 손을 대보았지만 숨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삼촌에게 전화

했고, 나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나는 그곳에서도 쭈뼛쭈뼛 언저리만을 서성였다. 그런 나를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뵈었던 친지분들이 아버지 영정사진 아래 앉혀주셨다. 정신도 기억도 없이 삼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24시간 내내 누워 계시던 자리에 몸을 뉘고 나자 영문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며칠 뒤, 중년의 남자는 다시금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적어도 십 년쯤은 더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리 허무하게 가시는구나. 그래도 막내딸 효도 받는다고 좋아하셨으니 다행이라 여겨야겠지.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신발장 위에는 또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튿날에야 들여다본 봉투 안에는 몇 년 치 생활비는 족히 넘을 한 장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세 오라비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단다. 딸이 극진히 모시는 통에 백 살도 넘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 작은 집 한 채쯤은 너희들이 마련해줘야 딸이 아비를 더 잘 모시지 않겠느냐고. 그런 명을 내리기 위해 아버지는 건강한 척, 정정한 척,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연기를 하셨음을 나중에 작은아버님이 일러주셨다.

아직도 나는 알 수가 없다. 딸인 나와 아버지인 당신 앞에 '가족'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져다 써도 되는지. 더러 혹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윙윙 내 귓가에 소용돌이친다.

"그래. 죽도록 미워하거라! 미워해야 어여뻐도 하는 법인기라!"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이별을 거치며 알게 되었다. 사랑하기에 미워했을지도 모르며 한없이 원망했기에 가여워질 수도 있는 것이 핏줄이라는 것. 그래서 핏줄은 정보다 질기고, 삶보다 징하기도 하다는 것.

2022 신춘편지쇼

장려상

후천적 쌍둥이의 탄생기

애청자

저는 올해 학부모가 된 두 딸의 엄마이자 소중한 분의 아내이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두 딸은 후천적 쌍둥이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내 앞에서 또렷하게 말하는 큰딸의 목소리에 저는 그 시간이 순간 정지라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핑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지는 아마도 놀이터에서 처음 본 같은 반 딸아이 친구 엄마라서 그랬나 봅니다. 만난 지 10여 분이 지나 처음 본 여자에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까발려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요. 우리 큰딸 말이 맞아요. 큰딸 엄마는 2년 전 우리 큰딸을 두고 영면했습니다. 2010년에 결혼하고 2015년에 어렵게 얻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프기 시작해 5년을 암과 싸우다 큰딸을 눈에 담고서는 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친정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꼬마는 고작 5살이 되었을 때 세상 소중한 엄마를 잃었습니다.

"넌 몇 살이니?"

유난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눈물이 많은 큰딸. 우리 큰딸을 처음 본 날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다가설지 몰라서 빵이며 우유며 어색하게 주던 그날이 생각나요.

큰딸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자기 몸만한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데요. 항상 먼저 하늘로 간 엄마를 그리다가 지금은 그 수수깡 같은 손으로 우리 네 식구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그 꼬마는 이제 저한테 와서는 엄마 배 뚱뚱하다, 따뜻하다며 어루만지고서야 아침에 등교하는 믿음직스러운 큰딸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듯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5.4kg이에요."

우리 막내는 자이언트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저는 자연식이며 등산이며 침술이며 안 한 것이 없이 3년을 노력한 끝에 막내딸을 귀하게 얻었습니다. 금쪽같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너무나 귀해서 탈이 날까 하여 6개월까지 누워서 태중에서 키우기만 했더니 5.4kg으로 태어났죠. 병원에서도 자이언트 베이비가 탄생했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산후조리원에서는 '강호동 딸'이라는 별명이 붙어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늘씬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종양이 뭐예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선생님."

의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쓰러진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딸은 18개월 차,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아빠를 잃었어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아기 아빠의 갑작스러운 간암 진단 3주 만에 저는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는 상주가 되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여름 내복에 기저귀를 차고 해맑게 뛰어다니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게는 바다 같고 딸에게는 태산 같던 아버지를 잃은 날, 하늘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단둘만 남은 저와 우리 아가. 저는 어리석게도 엄마답지 못하게 손바닥만한 우리 아가 등에 기대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매일 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툭하면 아기 아빠 납골당에 가서 아가를 안고 아가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다 왔어요. 그럴 때마다 아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울지마" 연이어 말했어요. 그렇게 삼년상을 지내고 두 해를 더 넘어 우리 막내에게 가슴으로 낳아 키워주는 아빠가 생겼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내 발은 둥둥 떠다니는 듯하여 살아도 살아 있지 않은 그 고통과 허망함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한 몸에서 몸의 반이 잘려 나갔는데 어찌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제대로 누울 수 있을까요? 사실 장례식장에서부터 삼년상까지의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 기저귀를 떼고 말도 온전한 문장으로 잘하더군요. 인생의 80% 효도를 한다던 그 금쪽같은 시간들이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아장거리는 아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1미터도 안 되는 삼척동자만한 아가에게 기대어 살았던 지난 시간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루하루 백 미터 달리기하듯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듯한 하루살이에 지칠 때 큰 키에 비쩍 마른 남자가 자기 무릎만한 딸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 실루엣이 늘 눈에 밟혔습니다. 그 작은 아가랑 밥은 해 먹는지, 애는 어린이집에서 잘 데리고 가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

가 사별했을 때 생각이 아른거려서 아가 반찬이며 사내가 잘 먹는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서 우리 아가랑 넷이 한 밥상에 도란도란 밥을 먹습니다.

"10년 전에 산 티셔츠를 아직도 입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옷도 오래 입은 흔적에 젊은 친구가 참 검소하다고 생각했죠. 돈 만 원도 쪼개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소한 것이 아니라 아픈 아내의 약값과 병원비를 대느라 병실을 구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아내와 딸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밤에 와서는 통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돌봅니다. 그래서인지 밤잠 못 자가며 투잡을 했기에 늘 말라 있었고요. 지금은 맘 편하고 제가 사육해서인지 7킬로그램 살이 쪄서 이제야 정상체중이 되었어요. 그래도 뱃살을 어떻게 뺄까 고민한답니다.

우리 쌍둥이는 이렇게 두 가족의 사별을 겪고 나서야 탄생했습니다. 18개월에 아빠를 잃은 막내딸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두 번째 아빠를 얻었습니다. 5살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큰딸은 두 번째 엄마라는 저를 얻었고요.

누군가가 우리 딸들을 보고 "이란성 쌍둥이예요?" 물으면 어색하게 "네~ 그래요" 대답하면 우리 쌍둥이들은 기특한 것인지 눈치가 빤한 것인지 모른 척하고는 열심히 놀아요. 엄마와 아빠와 가족을 아이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해주나 봐요. 둘째가 첫째보다 키가 10센티나 더 큰 데도 정말 고마운 것은 꼬박꼬박 "언니~ 언니~" 말해주는 거예요. 우애 좋게 예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아닌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듯이 속 깊은 녀석들입니다. 그 작은 가슴에 동해바다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강에 앉아서 네 식구 도란도란 늘 바라던 그 평온한 휴일



을 보냈습니다. 파란 잔디밭에서 바람을 가르는 이 봄이 정말 눈물 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고요, 햇살은 빛나고요, 나의 영원한 반쪽은 곁에서 웃어주고요. 흐르는 한강을 보는데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해도 되는 일일까 싶어서 울컥했어요. 커다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닌 말 그대로 '평온함'을 일상에서 얻는 일이요.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콩알만한 아가와 세상에 던져진 저로서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 사는 인생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말라고, 이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두 번 살게 해주는 인생 같습니다. 화장터에서 울었던 서른여덟 살의 나, 두 살의 아가, 마흔 살의 그 사내, 다섯 살 아이. 우리 네 사람 우리 가족 두 번째로 사는 인생 맞지요? 두 배로 응원해주실 거죠? 욕심 없이 평온한 일상을 행복으로 감사로 알고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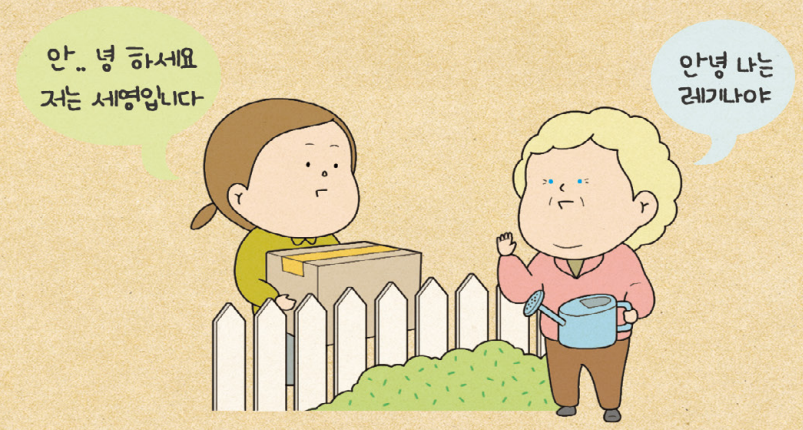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강원도 동해시의
여성시대 가족 서세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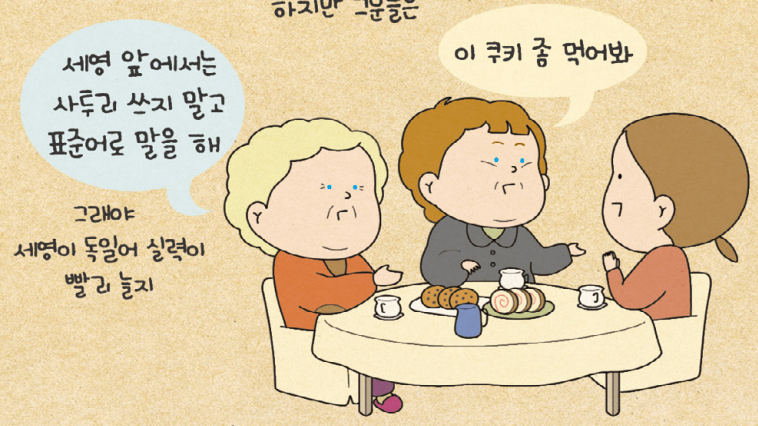


1995년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제 마음과 행동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것은 보증수표와도 같거든요.

그런 저를 이웃의 레기나 할머니는
패션 백화점에 소개를 시켜주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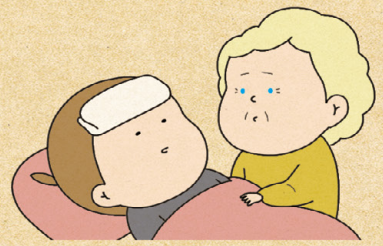
저는 할머니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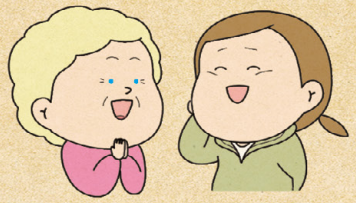
제 퇴근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며
건네주는 따뜻한 말

어쩌면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한국의 부모님과 연이 끊긴 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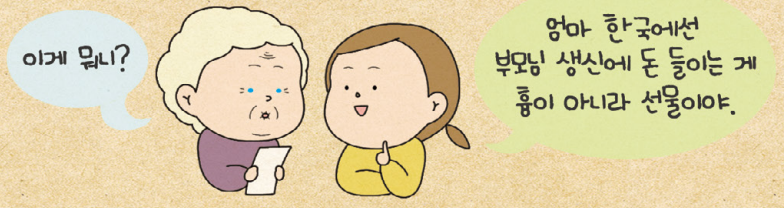


아플 때 챙겨주시고



제 좋은 소식에 동네방네 소문내며
본인 일처럼 좋아해 주시는
레기나 할머니. 아니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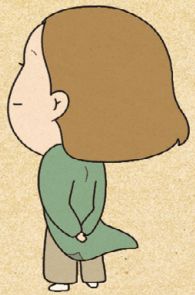
엄마의 95번째 생일에 독일로 날아간 저는



한국식의 효도를 하기도 했지요.



복덩어리라며 엉덩이를 토닥여주시던,
예쁘고 대견하다며 나를 처음으로 귀하게 대해주신
하늘에 계신 나의 두 번째 엄마



사랑해요.



치료와 케어를 동시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거래고객

양산서울요양병원 양철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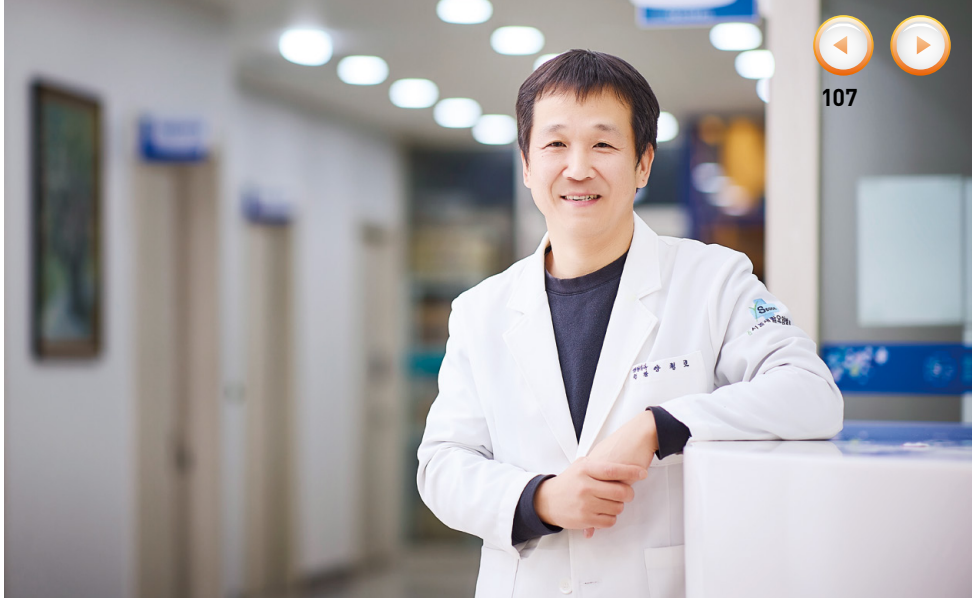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인구가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24시간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통받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양산서울요양병원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케어하고 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5월 개원한 양산서울요양병원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다. 현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에서 총 10여 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으며, 50여 명의 치료사와 70여 명의 간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일반병원에서 봉직하다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의 수요가 늘어날 거로 생각해 개원을 결심했어요. 당시 양산에는 재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전문 재활을 중점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했죠."

뇌졸중이나 중풍이 오면 대부분의 환자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일반 재활병원은 입원 기간이 한정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



물론 나이가 많지 않거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통원 치료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고령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면 통원 치료가 쉽지 않고 결국 집에서도 24시간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야 한다. 양철호 대표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개원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진을 모두 30대의 젊은 의료진으로 구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매진함으로써 보호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양산서울요양병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양산에서 유일하게 소아재활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아 환자들이 하루 중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이나 몇몇 전문 재활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규모의 병원에서 낮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흔치 않다. 소아 환자들은 독립된 치료실에서 치료사가 1대1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개원 이후 낮병





동을 지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사가 보호자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직원들에게도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양철호 대표는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는다.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향후 5년 안에 중환을 위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과 케어가 중심이 되는 요양병원으로 이원화하여 시스템을 분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철호 대표는 앞으로의 플랜을 위해 병원 개업 이후 쭉 주거래 은행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도움도 생각하고 있다. 이원화를 위한 시설 투자기 필요하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문준만 지점장은 "양산지점 메디칼 네트워크론 고객인 양산서울요양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지역사회 거점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표님의 플랜이 실현되어 계속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희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서울요양병원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도약하길 기대한다.

*** 메디칼 네트워크론**
은행권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에 의해 전국 의료사업자에 담보대출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이 특징(한도약정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포함)



양산서울요양병원 양철호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문준만 지점장

양산서울요양병원 양철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우수한 의료진과 전문적인 치료사를 영입하라.
2.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라.
3.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라.

양산서울요양병원
대 표 양철호
전 화 055-364-1000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7길 11-14
홈페이지 www.양산서울요양병원.com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젊은 감각과 정직한 품질로 옷에 날개를 달다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거래고객

㈜민스샵 천정민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여성의류 쇼핑몰 민스샵은 2009년 창업 이후
총 13가지 상표권 및 서비스표를 출원하고, 해외 판매 진출은 물론
코스메틱 브랜드까지 런칭하며 연매출 180억 원을 돌파했다.
젊은 패기와 감각,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약간 주춤했던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내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스샵은 하루에도 몇백 개씩 생겼다 없어지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무려 13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이다. 트렌드를 잃지 않되 너무 유행에만 치우치지 않고 클래식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제가 20대 때에는 유행을 많이 따르고 포인트가 강한 옷을 주로 팔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30대가 되고 고객들도 함께 나이를 먹다 보니 옷 스타일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MZ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힙한 디자인은 물론 연령대가 조금 높은 고객들도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옷을 구성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여성의류 쇼핑몰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민스샵만의 강점은



바로 천정민 대표가 직접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가 옷을 처음 입어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원단의 질, 옷의 불편함 등을 체감할 수 있다.

"저는 아무리 옷이 예뻐도 원단이 안 좋거나 입었을 때 불편한 옷은 팔지 않아요. 제가 미리 피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점을 모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품 질이 안 좋고 옷이 불편해도 사진으로 예뻐 보이는 옷은 무조건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 다 반품으로 돌아오고 저희 쇼핑몰 평판만 안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천정민 대표에게 '정직'이라는 철학이 생겼다. 품질 좋은 옷을 만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스샵 옷은 예쁘기도 하지만 원단이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스무 살 때 엄마와 무작정 시작한 쇼핑몰은 하루에 한 벌 팔기도 힘들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천정민 대표가 방





송 출연을 하면서 당시 입었던 재킷이 불티나게 팔렸고 그것이 기회가 됐다.

IBK기업은행과의 인연도 그때 시작됐다. 갑자기 주문은 밀려드는데 물건을 사입할 자금이 부족해 힘들어할 때 IBK기업은행에서 손을 잡아 준 것이다. 당시 IBK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일부는 물건을 매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광고비로 쓰면서 민스샵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IBK기업은행이 없었으면 지금의 민스샵도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작고 영세한 업체였는데 저희를 믿고 대출을 해주신 거잖아요. 올해 3월 동탄에 사옥을 지어 회사를 이전했는데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향후 골프웨어를 비롯해 의류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에요. 화장품 사업도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IBK기업은행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유수경 지점장은 "민스샵은 대표님이 무척 젊으셔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유망 기업"이라며 "처음부터 함께 걸어온 기업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니 은행 입장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뿌듯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대표님의 열정을 서포트하여 민스샵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항상 비수기를 대비해 성수기 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천정민 대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민스샵의 성공 비결을 알 것만 같다.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유수경 지점장(왼쪽)과 ㈜민스샵 천정민 대표

㈜민스샵 천정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고객에게 정직하라.
2. 트렌드를 잃지 않되, 너무 치우지지 말라.
3. 비수기를 대비하라.

㈜민스샵
대 표 천정민
전 화 1588-1309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장지천5길 30-3 민스샵빌딩
홈페이지 www.minsshop.com

여성시대의 월화수목금토일

월 라디오 주치의
몸이 건강하면 마음까지 건강해
진다고 하죠. 몸과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여성시대 앞으로 보내주세요.

화 사랑탐구생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를 여성시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화요일 아침, 웃기는 부부!
권재관 김경아 씨와 함께 탐구해 드립니다. ♡

수 열린 수요일
여성시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목 장용의 단결필승충성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군대 시절!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개그맨 장용 씨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소한
육아 고민과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방에 올려주시면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님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토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를 이웃으로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헤쳐
나갑니다.

일 여성살롱
매달 특별한 분과 함께 과학, 문화,
우주, 역사, 음악, 미술, 철학, 경제…
알아둘수록 유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성시대
인터넷 주소 www.imbc.com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